No.1 시니어 전문 케어
센터메디컬그룹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

# 기독일보

삼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FRIDAY, December 6 2024 Vol. 940

## "1세, 2세가 함께 나아가는 주안에교회, 승리의 길을 향해"

### 주안에교회 제2대 담임 이충환(이 크리스) 목사 취임

주안에교회가 제2대 담임 이충환 목사(이 크리스) 취임 감사예배를 11월 22일오후 7시 30분에 드렸다.

이날 '초대교회의 성도들(행 2:43-47)'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한 윤준용 목사(부노회장)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힘쓰면 반드시 하나님의 권세가 임해서 그 권세를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며 "저는 췌장암에 걸렸었고 지금은 심부전증으로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파하고 있다. 예수를 믿는 권세를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100% 역사하실 줄 믿는다"면서 "초대교회와 같이 모이기에 힘쓰고 한마음으로 예수께서 주신 그 불변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든든한 교회로 세워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했다.

2대 담임 이충환 목사는 답사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린다. 이 순간을 함께 누리며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전한다"며 "신앙에서의 눈물과 고통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걸어온 여러 성도님에게 감사드린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는 때로 어려움이 따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고난은 헛되지 않음을 믿는다.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다."

이 목사는 이어 바울의 말씀을 인용하며, "장차 나타날 영광은 지금 우리가 겪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다"고 전했다. 그는 "주안의 교회가 겪은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바꾸실 것"이라고 했다.

또한, "부족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목사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저는 충성된 마음으로 겸손히 다짐한다. 여러분의 아픔을 공감하며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목회자가 되겠다"며 "우리 모두가 함께 손을 맞잡고 서로를 세워주며 나아가야 한다. 1세대와 2세대가 하나 된 영성으로 하나의 교회로 나가기를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신 복을 주실 것이다. 이 여정의 끝은 반드시 주님의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자"고 전했다.

축사를 한 조주호 목사(증경 노회장)는 "하나님의 사람은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좇으라"는 성경 구절을 언급하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데 가장 중요한 지침이 바로 이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고 하셨다"고 했다.

토마스 맹 기자 ➔ 2면에서 계속



주안에교회 제2대 담임목사로 이충환 목사 취임했다. 앞줄 오른쪽 두 번째가 이충환 목사. ⓒ기독일보

## 오하이오 주지사, 성별에 따른 화장실 사용 법안 서명

지난 4일 크리스천포스트(CP)의 보도에 따르면, 오하이오 주는 학생 자신이 선호하는 성 정체성 대신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화장실 및 기타 개인 공간을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주가 되었다.

오하이오주 공화당 마이크 드와인(Mike DeWine) 주지사는 지난 수요일에 상원 법안 104호(Senate Bill 104)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에서 남녀별 화장실 이용에 관한 모든 학생 보호 법(Protect All Students Act)"을 시행한다.

이 법안은 오하이오 주 하원에서 60대 31로 통과되었고, 주 상원에서 24대 7로 통과되었다. 상원 법안 104호는 학교에서 "여러 학생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각 학생 화장실, 라커룸, 탈의실 또는 샤워실을 지정해야 하며, 이는 학교 건물에 위치하든 학교가 후원하는 활동에 사용하는 시설에 위치하든 관계없이 생물학적 성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명시한다.



오하이오 주지사 Mike DeWine. ⓒThe Christian Post

오하이오는 현재 K-12 학교에서 트랜스젠더 청소년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과 성별 분리 공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12개 주 중 하나다. 앨라배마, 아칸소, 아이다호, 아이오와,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노스다코타,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주가 여기에 해당한다. 플로리다와 유타는 트랜스젠더 개인이 K-12 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 소유 시설에서 자신의 성별에 맞는 성별 분리 공간을 사용하도록 요구한다. 이미경 기자

## 호주, 16세 미만 SNS 사용 금지

호주가 세계에서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했다.

호주 상원은 하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 지 하루 만인 11월 28일(이하 현지시각) 찬성 34 대 반대 19로 이러한 내용의 법안을 승인했다. 앞서 하원은 찬성 102 대 반대 13의 압도적 표차로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새 법안은 틱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 등 SNS 플랫폼 업체에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계정을 금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54억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의 건강과 교육 지원이 주목적인 유튜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앤서니 앨버니지호주 총리는 상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 후 "이제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 2면에서 계속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뱅크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태양광, 솔라!!
2024년 대박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연방ITC: 30% 이상
✓솔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전기로 절감: 최대 90%
BTS SOLAR DESIGN 213.500.8000


(현)마동환 변호사 그룹 대표
(현)굿네이버스 USA 이사장
(전)남가주 교회협의회 고문 변호사
(전)재미 발명가 협회 고문 변호사
(전)중부 상공회의소 이사장

www.marhlaw.com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변호 — 의뢰인의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 변호
실력 — 문제의 핵심이슈 파악 법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적용
정성 —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칙
책임 — 모든 과정에 대한 책임 의뢰인과의 대화 창구 활짝 열림
신뢰 — 의뢰인과의 인연을 소중히 생각

상법 / 부동산법
상법의 전반적인 분야(비즈니스, 부동산법, 세관법, 운송법, 국제법, 특허법)에 걸쳐 오랜 기간 그 실력을 인정받아 온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그 어느 분야보다도 상법에서는 지략과 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피지기 이루어지려면 변호사와 의뢰인 간에 긴밀한 대화와 그로인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뱅크럽시
뱅크럽시는 새로운 출발은 물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법이기도 하지만, 자산이 있으신 분들은 절대로 섣불리 해서는 안됩니다.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모든 상담 절대 비밀 보장
213.820.3704
사무실 : 213.487.9190
Fax : 213.487.9484 marhlaw@yahoo.com
Main : 700 S. Flower St., #1000 LA, CA 90017
3435 Wilshire Blvd. #2700 LA,, CA 90010

# 라크마, 가족이 함께하는 성탄 콘서트로 감동의 밤 선사

## 크리스마스 패밀리 나이트 콘서트 8일(토) 오후 7시 한길교회

'크리스마스 패밀리 나이트 콘서트'가 라크마(LAKMA, 단장 최승호) 주최로 오는 8일(주일) 오후 7시, 한길교회에서 열린다.

이번 콘서트는 '글로리아'를 주제로 라크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3명의 장학생이 함께 무대에 오른다. 공연의 전반부는 부지휘자 에스더 김의 지휘 아래 크리스마스 캐럴이 연주되며, 마에스트로 윤임상 감독은 모차르트의 대표적인 작품 중 하나인 'C단조 미사' 중 '영광'을 선보인다. 후반부에는 윤 감독이 두 명의 학생 지휘자와 함께 공연을 이끌며, 올해 라크마 장학금 수상자들의 감동적인 연주가 펼쳐질 예정이다.



2018년도 크리스마스 패밀리 나이트 콘서트 모습.

특히, 이번 공연에서 무대에 오르는 3명의 장학생은 라크마가 매년 선정해 장학금을 수여하는 인재들이다. 라크마 윤임상 음악감독은 "매년 3-4명의 장학생을 선발하는데, 이들은 음악적 탁월성뿐만 아니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며 열심히 음악에 매진하는 학생들"이라며 장학생들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올해 1등을 차지한 유라 장 씨는 피아니스트로, 어린 시절 아버지와 오빠를 잃고 절망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신앙을 통해 이를 극복하며 음악을 향한 꿈을 이어왔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주는 음악가가 되겠다'는 꿈을 안고 어려움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았다. 그 결과, 유라 장 씨는 영국과 이탈리아에서 권위 있는 상들을 수상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라크마 관계자는 "그녀의 성공 뒤에는 한국의 외딴 섬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준 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믿음이 있다"며 두 모녀에게 경의를 표했다.



'크리스마스 패밀리 나이트 콘서트'가 라크마(LAKMA, 단장 최승호) 주최로 오는 8일(일) 오후 7시, 한길교회에서 열린다. ⓒ기독일보

이번 콘서트는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최승호 단장은 "학생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이들이 앞으로 중요한 일들을 해나가기를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다.

토마스 맹 기자

# 손주들과 함께 만드는 성탄 선물 공진단

## 어노인팅교회 12월 21일(토) 오전 11시

라크라센타 어노인팅교회(담임 신경섭 목사)가 오는 12월 21일(토) 오전 11시, 손자와 손녀들과 함께 공진단을 만드는 특별한 성탄절 클래스를 개최한다. 이번 클래스는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공진단은 전통적인 한방 건강식품으로, 주로 기력을 회복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이번 클래스에서는 손자, 손녀와 함께 공진단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가족 간의 사랑과 건강을 기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클래스는 미리 준비된 재료로 공진단을 반죽하고 동그랗게 만드는 작업과, 완성된 공진단을 포장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 행사는 서민수 목사(방주교회, 풀러턴)가 주관하며, 참가자들은 공진단 만들기를 통해 전통적인 선물을 손쉽게 만들 수 있다.

이번 클래스는 단순한 만들기 체험에 그치지 않는다. 신경섭 목사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선물이다"라며, "이번 공진단 만들기 클래스를 통해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클래스는 지역교회의 전도 사역 일환으로, 다른 교회들도 공진단 만들기 클래스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라크레센타 어노인팅교회는 12월 21일(토) 공진단 만들기 클라스를 연다. ⓒ어노인팅교회

**공진단 만들기 클래스 문의: 신경섭 목사(224-622-9183 , mcc3694@yahoo.com)**

# 위브릿지 교회 위한 원하트의 연말 선물

연말을 맞아 남가주에 위치한 위브릿지 교회들이 큰 선물을 받았다. 원하트미니스트리(OneHeart Ministry)는 위브릿지 교회들을 위해 공기정화기 28대를 기증했다.

이번 도네이션의 대상은 남가주 지역에 위치한 미자립 교회들로, 교회들은 신청을 통해 공기정화기(Bactakleen Ultra Mist Anti Bacterial System, $500 상당)를 받게 되었다. 공기정화기는 매일 사용하지 않고 주 1회 정도만 켜면 공기를 정화할 수 있는 제품으로, 특히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환경에서 건강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원하트미니스트리는 "이번 도네이션이 성도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늘 건강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픽업은 기독일보와 원하트 미니스트리의 두 장소에서 진행되었으며, 각 교회는 1대씩 신청하여 28개의 교회가 혜택을 받았다.

픽업 관련 문의는 기독일보(213-434-1170)로 하면 된다.

조셉 리 기자

➔ 1면 기사 〈1세, 2세가 함께..〉에 이어서 이어서 "목사는 주의 양무리를 맡은 사명을 가진 자이다. 교회는 내 마음대로 하는 곳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실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며, 교회와 신앙의 여정에서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며 "우리가 약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했다.

아울러 예배에서 김태형 목사(ANC온누리교회)와 데리빗 리 목사(TRINITY WEST SEATTLE)가 영상으로 축사를, 정여창 목사(증경 노회장)이 축도했다.

지난 7월 주안에교회(ICCC)의 1대 담임 최혁 목사는 교회가 다음 단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스로 담임목사 자리를 내려놓고 2대 담임목사 청빙을 시작했었다.

한편, 이 교회는 목회부, 교육부, EM 공동체를 함께 섬길 풀타임 및 파트타임 사역자를 모집하고 있다.

➔ 1면 기사 〈호주, 16세 미만...〉에 이어서

앨버니지 총리는 지난 11월 7일 기자회견에서 "과도한 소셜미디어 사용으로 인해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위험한 상황이다. 소셜미디어의 부상과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대한 해악 사이에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법안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새 법안은 내년 1월부터 1년 동안 시범 기간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호주 정부는 새 법률이 부모 동의를 받은 아동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극빈국 아동 성경 필사 캠페인


성경을 필사하는 어린이들

- 대상: 아이티, 수리남, 도미니카 극빈 아동
  우크라이나 전몰장병 자녀
- 내용: 4복음서 필사(1인당 $100 장학금)
- 기간: 10월 1일 ~ 12월 15일(장학금 전달: 12월 25일)

성경 필사 캠페인
장학금을
후원해 주세요!

월드쉐어 USA는 수리남, 아이티, 도미니카, 우크라이나 극빈 아동을 후원하며 복음을 전합니다.
월드쉐어 USA는 극빈국 극빈 지역에 건강하고 복음적인 기독교 학교 건립을 준비합니다.

Sharing Bread for Soul World ShareUSA

후원문의 (323)578-7933 강태광 목사
3123 W. 8th St. #206, Los Angeles, CA 90005

# 동부교협 성탄 찬양제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뻐하고, 감사드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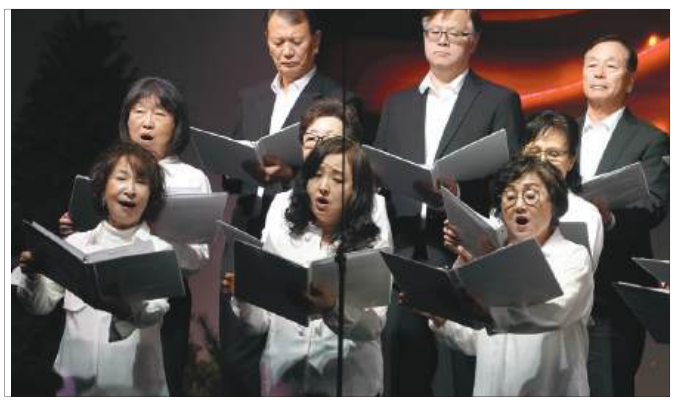
### 12월 1일 선한청지기교회 박선호 목사, "우리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다시 태어나기를"



2024년 동부교협(회장 박선호 목사) 성탄 찬양제가 12월 1일(주일) 선한청지기교회에서 열렸다. ©기독일보

2024년 동부교협(회장 박선호 목사) 성탄 찬양제가 12월 1일(주일) 오후 5시 선한청지기교회(담임 송병주 목사)에서 열렸다. 홍총수 목사(나성한미교회)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 구자민 목사(유니온 교회)가 대표기도하고, 고태형 목사(선한목자교회)가 “세상을 구원하실 분, 예수”(마 1:18-25)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구별되게 태어났다며, 왜 그리스도가 요셉에게서 태어나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야 했는지를 대속의 관점에서 설명했다. “예수님은 요셉에게 태어났다고 하지 아니하고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고 했다. 시편 49편에서, ‘아무리 대단한 부자라도 자기의 생명을 대속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속전을 지불하고 생명을 속량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한다. 생명을 속량하는 값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이 비싼 것이어서, 아무리 벌어도 그 값을 마련할 수 없다. 오직 죄 없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예수님 외에는 해결할 분이 없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뻐하고, 감사드리는 절기가 대림절이다.”





설교에 이어, 최현규 목사(주님처치)의 헌금 기도, 하철수 집사(선한목자교회)의 헌금특송 “그래도”(송명희 작사, 신상우 작곡)에 이어, 박선호 목사(동부교협 회장, 늘푸른교회 담임)가 인사말을 전했다.

박 목사는, “음악회를 여러 군데를 다녀봤지만, 이 찬양제만큼 저에게 큰 감동을 주는 음악회를 보지 못했다. 우리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스랍들이 찬양할 때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이 걸어가야 할 사명을 발견한 것과 같은 은혜와 감동이 우리들의 찬양 중에 있다”라며, “아기 예수 탄생의 역사가 우리 마음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나의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쓸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2부 찬양제에는 여덟 개 교회가 참여하고 특별 찬조 출연했다. 선한목자교회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동부사랑의교회가 ‘글로리아(Gloria)’, ‘원해’, 주님처치가 ‘희망의 빛, 예수’, 유니온교회가 ‘매일 주만 섬기리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CTS찬양팀이 ‘강하고 담대하라’, 아름다운교회가 ‘별빛’, ‘은혜 아니면’ , 나성한미교회가 ‘글로리아’, ‘찾아오신 예수’ , 글로벌선교교회가 ‘독수리 날개와 같이’,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동부교협 목회자 및 사모 일동이 ‘그 맑고 환한 밤 중에’를 불렀고, 마지막으로 선한청지기교회가 ‘성탄절 팡파르’, ‘영화롭도다’를 찬양했다.

참가자들이 함께 ‘할렐루야’를 찬양하고, 송병주 목사 광고, 주님의교회 김병학 목사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다. 주디 한 기자

# 미주평안교회 추수감사 찬양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 하나님”

### 송정명 목사, “다윗의 고백적인 감사 요인”



창립 50주년을 맞은 미주평안교회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11월 17일(주일) 오후 2시 본당에서 추수감사절 찬양제를 드리며 감사의 기쁨을 나눴다. ©미주평안교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미주평안교회(임승진 목사)는 2024년 추수감사주일인 11월 17일(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고 찬양제를 개최했다.

이 교회는 매년 추수감사절에 찬양제를 개최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특별한 전통이 있다. 올해 찬양제에는 유년부를 비롯해 장년부까지 전교인이 함께했다.

추수감사절 예배는 박병렬 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김 조나단 안수집사의 대표 기도, 찬양대의 특별 찬양 후, 버니 홍(Bernie Hong) 목사가 “Thankful for the Gift of God”(Eph 2:8-10)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어서 송정명 목사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을 본문으로 “다윗의 고백적인 감사 요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송 목사는 “매 주일이 추수 감사 주일이 됐으면 좋겠다”며 ‘부족함 없는 채움의 은혜’, ‘쉴만한 물가와 의의 길로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잔이 넘치도록 보상해주시는 은혜’를 다윗의 감사의 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제 25년도 1월 5일이 되면 미주 평안 교회가 창립 50주년이 된다. 이민 교회로서는 50년 역사를 가진 교회가 흔하지 않다. 그 팬데믹 기간에 미주에 있는 한인 교회 가운데 교회 천 개가 문을 닫았다. 미주 평안교회는 내년에 희년을 선포하게 되고 새로운 50년을 향해 새로운 발걸음을 옮기게 된다”며 미주평안교회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했다.

이날 예배는 임승진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되었으며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감사를 나누었다.

오후 2시 캐롤라인의 사회로 진행된 찬양제는 유년부부터 장년선교회에 이르기까지 총 16 팀이 참가했다.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쉐마청년부, 다비다선교회, 유니게선교회, 모세/아론선교회, 사라선교회, 여호수아/갈렙선교회, 한나선교회, 디모데/마리아선교회, 바울선교회, 드보라선교회, 말루스합창단, 에녹선교회 등 다양한 팀들이 참가했으며 은혜로운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됐다.

김민선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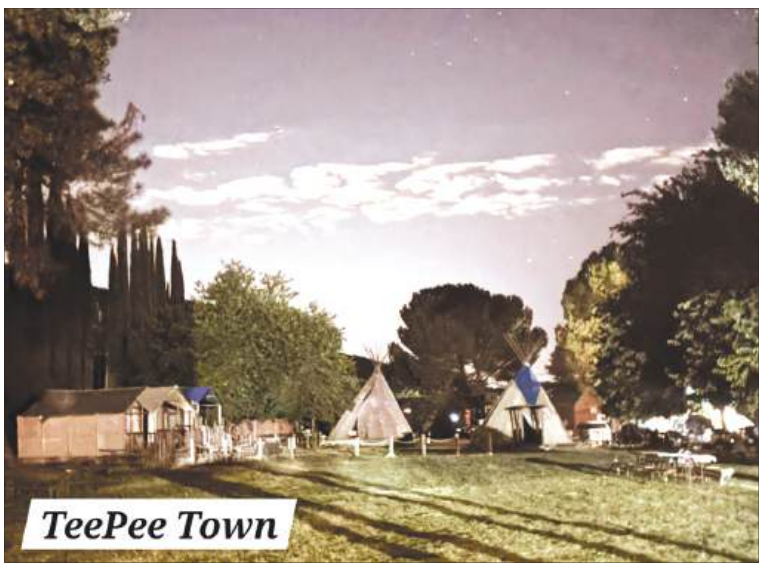
메디케어 전문 Agent
Annie Moon
Lic# OB51378
문 혜 영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세요!
치과 Up to $4,000~ Everyday Allowence(마켓, 유틸리티, OTC등)
안경, 보청기 Flex Card, Silver Sneaker + Extra Exercise 등등
메디케어만 가지신 분!
메디케어 & 메디칼을 동시에 가지신 분!
새로 메디케어를 받으실 분!
지방에서 이사오신 분 등!
모든 메디케어에 관한 정보와 문의는 애니 문과 상담하세요.

연락주세요! Annie Moon
T.(213)503-1669
메디케어 Plan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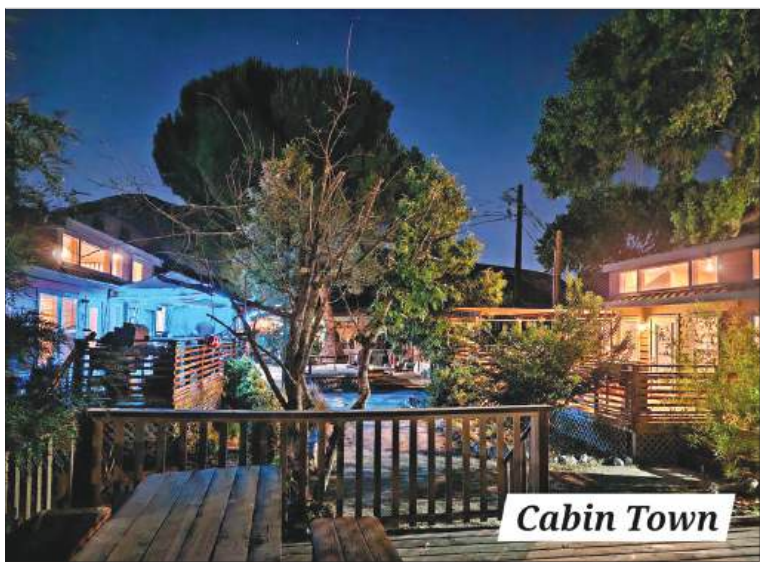


# 자연 치유 · 회복이 되는 체험장으로의 초대, 액션캠프

**퍼시픽 크레스트 트레일 베이스 캠프로 유명**
**인터넷 중독 벗어나 자연과의 하나됨 경험**



LA 북쪽 액튼(Acton)에 위치한 액션 캠프 Teepee Town. ⓒAction Camp



액션 캠프 Cabin Town. ⓒAction Camp

엘에이 다운타운에서 북쪽으로 1시간 남짓 달리면 나오는 도시 액튼(Acton)에는, 각종 RV와 텐트, 글램핑 족이 몰리는 액션캠프가 자리잡고 있다.

총 84 에이커(100,000 평 정도)에 걸쳐 있는 이 캠핑장은 멕시코 국경에서 시작하여 캐나다 국경까지 연결되는 PCT(Pacfic Crest Trail)의 베이스 캠프로 유명하다.

약 10년 전, 청소년 복음 전도에 대한 비전을 품은 한태흠 집사가 운영을 시작하면서 많은 다국적 민족들이 방문하게 되고 교회 수련장과 기도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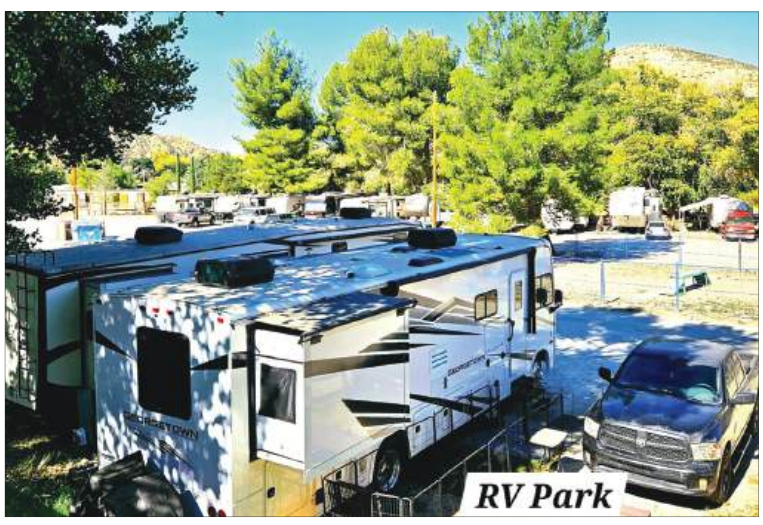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중독 및 불안증세를 보이는 청소년 및 청년들이 친구, 가족들과 함께 자연과 하나됨을 경험하며, 꿈과 비젼을 발견하게 되는 캠프장이다.

"청소년 치유 및 가족 힐링의 장소로 키워나가는 것이 처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다"라고 한 집사는 설명한다.

"자연에는 특유의 치유 능력이 있다. 캠프장을 운영하며 실제로 보고 체험하니, 더 확신한다"는 그는, "흙을 밟고 자연에 몸을 맡길 때 마음이 열리고 관계가 회복되는 가정들이 많았다"고 회고한다.

또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신 자연에서 자아를 발견하고, 믿음을 따라 사랑과 희망을 품고 한 걸음 한걸음씩 전진한다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으로 확신한다. 이것이 주님이 주신 믿음대로 행하라는 이름으로, Action Camp라는 이름을 짓게 된 이유다"라고 했다.

좋은 결과와 아름다운 열매는 작은 실천으로부터 시작된다. 또한 사랑과 희망, 믿음 없이는 아름다운 열매와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없다. 그는, "우리의 가장 기본 사명은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 가는 것이다. 액션캠프는 작은 실천 즉 'Action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김민선 기자



LA 북쪽 액튼(Acton)에 위치한 액션 캠프 Teepee Town. ⓒAction Camp


Pacific Crest Trail 하이커. ⓒAction Camp

# 제33회 러브 엘몬테, 하나님 사랑 나눠

나성한미교회(담임 홍충수 목사)가 엘 몬테 시티(El Monte city)이웃 주민들을 초청해 추수감사절과 문화나눔축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행사인 "러브 엘몬테(Love El monte)"가 33회 째를 맞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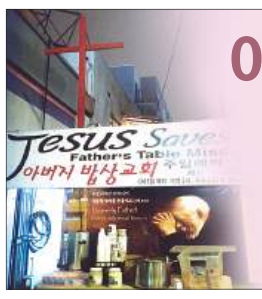
나성한미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로서 선교적 부르심의 소명과 사명으로 코비드 기간에도 이 행사를 지속했다.

특별히 2024년 올해는 K-FOOD Sharing Festival 시간으로 한국의 대표 음식인 불고기, 떡볶이, 김치, 오뎅국, 오이무침 등을 준비하여 많은 분들과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한국 음식 나눔과 동시에, 히스패닉 교회인 아구아 비바 교회(Agua Viva Church)에서는 스패니시로, 다민족 교회인 씨드베드 교회(Seedbed Church)에서는 영어 찬양으로 교회의 찬양팀들이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했다.

또한, 한쪽에서는 바자회가 열렸는데, 여러 옷가지와 생활물품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사람들이 몰렸고, 한쪽에서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놀이 장난감과 페이스 페인팅으로 아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였다. 김민선 기자


나성한미교회가 엘 몬테 시티 이웃 주민들을 초청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행사인 "러브 엘몬테(Love El monte)"가 33회 째를 맞았다. ⓒ나성한미교회

아버지 밥상교회(홈리스미션)
홈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장재효,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발 행 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T.(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주 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리모델링 전문
ADU 전문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Water Damage
실내구조 변경 집수리 일체 디자인/설계/시공
■ 1~2명이 일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2~3명이 조를 이루어 Crew가 일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 마루시공팀, Kitchen팀, Bathroom팀, Counter Top팀, 페인팅팀, Carpentry팀, 전기팀, Low Voltage음향팀, Plumbing팀, Window팀, Councrete팀, Stacco팀 Roofing팀, Solar시공팀, 철공게이트팀, 지진대비 보강공사팀, 디자인설계팀 (하청없이 직영팀으로만 운영합니다.)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23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상담해 보세요"
방문시 예약해 주세요!

Abundance Design & Construction
K-Urban Builders Inc.
Lic#854389
견적 상담 LA 213.310.1800
2621 W. Olympic Blvd. #205
Los Angeles, CA 90006
견적 상담 OC 949-781-9111
Show Room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 S사랑하는
# M마음으로
# G가족처럼

당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 2024년 메디케어 보험가입 및 변경기간
#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65세 이상의 시니어세요?**
메디케어 HMO 부가혜택이 많은 메디케어만 가지고 있을 경우
보험사별 차이점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하세요.



**메디케어 가입 시 3가지 선택**
보험회사, 메디칼그룹, 주치의 3가지를 선택하세요.
주치의가 서울메디칼그룹 소속인지 확인하세요.



**이미 주치의가 있으시다면?**
주치의의 의료보험 및 서울메디칼그룹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전문 보험 에이전트나 서울메디칼그룹 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세요.

문의전화: **866.760.3441**

이 광고에서 사용된 지표는 SMG가 2024년에 남가주 지역의 한인 주치의와 전문의 네트워크 규모에 대해 조사한 내부데이터에 기반한 것입니다. 서울메디칼그룹은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다양한 건강보험과 함께 독립된 의사 네트워크를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의료혜택과 네트워크 규모는 각각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헬스 플랜과 지역에 따라 다양합니다. 의료 서비스는 건강보험에 따라 제한, 제외, 또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메디칼그룹 800-611-9862로 문의하십시오.

# 한교연 "불법적 WEA 총회 개최 시도, 중단하라"

## 성명 통해 WEA 고위 인사들 문제 지적하며 촉구

**WEA 의장 '신사도운동' 의혹 등 복음주의 이탈**
**그런 자들이 한국 큰 교회와 총회 개최 논의 개탄**
**이들과 개최 모의한 한국 목사들, 무슨 자격으로?**
**그대로 추진하면 한국교회 또 다시 반목과 갈등**
**그 모든 책임은 은밀히 추진한 인사들이 져야**
**돌이키지 않으면 중대 결단 내릴 것 분명히 경고**


한교연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기독일보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이하 한교연)가 "불법적인 WEA 서울총회 개최 시도 당장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2일 발표했다. 최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가 WEA 총회를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한교연까지 가세하면서, 국내 복음주의권에서 WEA 총회 반대 여론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교연은 이 성명에서 "얼마 전 내년 WEA 서울총회 준비를 위한 조직위원회 출범식이 있었다"며 "WEA 총회를 유치할 자격이 없는 서울의 모 대형교회가 WEA의 복음주의 정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WEA 고위인사들과 모의해 총회 개최를 발표했다는 점에서 내년 WEA 서울총회는 절대 불가함을 밝힌다"고 했다. 이어 "WEA는 진보성향의 WCC를 추종하지 않는 복음적 인사들이 결성한 세계적인 복음운동 기구다. 지금도 각 대륙별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는 순수 복음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런데 이런 대륙별 복음주의 운동을 하나로 묶어 승화시켜야 할 위치에 있는 WEA가 본연의 복음주의 정신에서 이탈해 한국교회 주요 교단으로부터 종교다원주의·혼합주의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고 했다.

한교연은 "지금 한국교회 보수권에서는 WEA를 WCC와 동격으로 여기거나 그보다 못한 배교 집단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현 WEA 의장의 '신사도운동' 의혹과 전 사무총장의 노골적인 종교다원주의 행보와 깊은 연관이 있다"며 "이들 외에도 로마 교황청에 가서 교황 앞에 무릎을 꿇는 등 복음주의 지도자로서 상상할 수 없는 짓을 저지른 것이 WEA 전·현직 고위층 인사들의 실태"라고 했다.

이들은 "그런 자들이 지난해부터 한국을 자주 드나들며 주로 큰 교회를 찾아다니며 WEA 서울총회 개최 문제를 논의했다고 하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는 WEA, '세계복음주의연맹'이란 이름에 걸맞지 않은 매우 사사롭고 불법적인 행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에서 WEA 총회가 개최되는 것을 한국교회가 모두 반기는 분위기라면 이들이 WEA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교회 목회자들을 몰래 접촉해 의사 타진을 할 이유와 명분이 없지 않은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자들은 WEA라는 이름을 더 이상 욕되게 하지 말고 하루속히 WEA를 자진해서 떠나기를 촉구한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 노력으로 실추된 WEA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이 총회보다 급선무임을 밝힌다"며 "그런 후에 한국에서 WEA 총회가 개최된다면 한국교회 전 구성원이 환영해 마지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교연은 "이들과 은밀히 연합해 WEA 서울총회 개최를 모의한 한국교회 목사들에게 묻는다. 그대들은 WEA 정회원인가, 아니면 WEA에 어떤 공헌이라도 했는가. 무슨 자격으로 WEA 총회를 유치하고 무슨 근거로 조직위원회를 출범했는지 한국교회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이들과 부화뇌동한 한국교회 목회자 중에 이들이 오늘날 WEA를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라는 불명예의 굴레를 씌워 망가뜨린 주범이란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공모했다면 그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 지금이라도 사실을 털어놓고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기 바란다"고 했다.

한교연은 "만에 하나 성과주의와 공명심에 사로잡혀 이 일을 그대로 추진한다면 한국교회는 또다시 반목과 갈등을 거듭하다 사분오열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에 큰 위기가 닥친 마당에 복음주의까지 분열하게 되면 모든 희망이 사라지게 될 것이 자명하다"며 "그 모든 책임을 이 일을 은밀히 추진한 인사들이 져야 할 것이며, 만약 그러고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한국교회의 이름으로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라고 했다. 아래는 한교연 성명 전문.

### 불법적인 WEA 서울총회 개최 시도 당장 중단하라

얼마 전 내년 WEA 서울총회 준비를 위한 조직위원회 출범식이 있었다. WEA 총회를 유치할 자격이 없는 서울의 모 대형교회가 WEA의 복음주의 정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 WEA 고위인사들과 모의해 총회 개최를 발표했다는 점에서 내년 WEA 서울총회는 절대 불가함을 밝힌다.

WEA는 진보성향의 WCC를 추종하지 않는 복음적 인사들이 결성한 세계적인 복음운동 기구다. 지금도 각 대륙별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는 순수 복음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대륙별 복음주의 운동을 하나로 묶어 승화시켜야 할 위치에 있는 WEA가 본연의 복음주의 정신에서 이탈해 한국교회 주요 교단으로부터 종교다원주의·혼합주의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지금 한국교회 보수권에서는 WEA를 WCC와 동격으로 여기거나 그보다 못한 배교 집단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현 WEA 의장의 '신사도운동' 의혹과 전 사무총장의 노골적인 종교다원주의 행보와 깊은 연관이 있다. 이들 외에도 로마 교황청에 가서 교황 앞에 무릎을 꿇는 등 복음주의 지도자로서 상상할 수 없는 짓을 저지른 것이 WEA 전·현직 고위층 인사들의 실태다.

그런 자들이 지난해부터 한국을 자주 드나들며 주로 큰 교회를 찾아다니며 WEA 서울총회 개최 문제를 논의했다고 하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는 WEA, '세계복음주의연맹'이란 이름에 걸맞지 않은 매우 사사롭고 불법적인 행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에서 WEA 총회가 개최되는 것을 한국교회가 모두 반기는 분위기라면 이들이 WEA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교회 목회자들을 몰래 접촉해 의사 타진을 할 이유와 명분이 없지 않은가. 이런 자들은 WEA라는 이름을 더 이상 욕되게 하지 말고 하루속히 WEA를 자진해서 떠나기를 촉구한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담는 노력으로 실추된 WEA의 명예가 회복되는 것이 총회보다 급선무임을 밝힌다. 그런 후에 한국에서 WEA 총회가 개최된다면 한국교회 전 구성원이 환영해 마지않을 것이다. 이들과 은밀히 연합해 WEA 서울총회 개최를 모의한 한국교회 목사들에게 묻는다. 그대들은 WEA 정회원인가, 아니면 WEA에 어떤 공헌이라도 했는가. 무슨 자격으로 WEA 총회를 유치하고 무슨 근거로 조직위원회를 출범했는지 한국교회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이들과 부화뇌동한 한국교회 목회자 중에 이들이 오늘날 WEA를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라는 불명예의 굴레를 씌워 망가뜨린 주범이란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공모했다면 그 책임 또한 가볍지 않다. 지금이라도 사실을 털어놓고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리기 바란다. 만에 하나 성과주의와 공명심에 사로잡혀 이 일을 그대로 추진한다면 한국교회는 또다시 반목과 갈등을 거듭하다 사분오열하게 될 것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에 큰 위기가 닥친 마당에 복음주의까지 분열하게 되면 모든 희망이 사라지게 될 것이 자명하다. 그 모든 책임을 이 일을 은밀히 추진한 인사들이 져야 할 것이며, 만약 그러고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한국교회의 이름으로 중대한 결단을 내릴 것임을 분명히 경고하는 바이다.

2024. 12. 2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 ACTION CAMP에 오셔서 힐링하세요!

가족, 친구, 성도분들과 멋진 여행을 통해
기억에 남는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 Action Camp 장은…































미국내 가장 좋은 **시설여건, 서비스**

1. 교회 수련회, 단체 할인 혜택
2. 단체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공연장과 야외 영화도 볼 수 있는 스크린 설치
3. 샤워장, 공연장, 카페, 수영장, 배구장, 농구장, 놀이터
4. 야외 파티와 행사를 할 수 있는 편의시설과 위락시설
5. 디럭스 캐빈(Deluxe Cabin), 오토 캠핑(RV), 인디안텐트(TeePee), 텐트(Tent)장 주변에 전기, 수도, 식탁, 하수도 시설
6. 회원의 경우 캠프사이트나 캐빈을 이용할 경우 할인혜택

ACTION CAMP
FAITH & HOPE

**www.actioncamp.cc / larvresort.com**

ACTION CAMP
- HEALING
- EDUTAINMENT
- SPORT
- MEDIA
- GREEN

전화예약 or 온라인예약

**T. 661-268-1214**

7601 Soledad Canyon Rd. Acton CA 93510

Scan me!

# [늘 새롭게] 국윤권 목사, “이민교회가 선교지입니다”

**장애 목회 하셨던 아버지 보며 결코 목사 되지 않겠다 결심**
**돈 많은 장로가 되는 것이 꿈이던 청년, 아프리카에서,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 깨달아**



국윤권 목사(충현선교교회) ⓒ기독일보

지난 11월 TV기독일보의 ‘늘 새롭게 하소서’에서는, 한인교회가 나아갈 방향과 한인교회의 소중한 가치를 이어가고자 고민하는 국윤권 목사(충현선교교회 담임)를 만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낮고 잔잔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가는 국 목사의 인터뷰에는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장애인을 위한 목회에 헌신한 아버지를 향한 존경과 사랑, 한인교회를 향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저는 이민교회에서 자라면서 권사님, 집사님들 기도 받고 자랐다. 우리 교회에, ‘아브라함 사라 전도회’가 있는데, 그분들이 저에게 가장 힘이 되어주신다.”

“중학교 1학년 때 미국에 왔는데, 아버님은 삼성장로교회 부목사로 섬기며 장애인 사역을 하셨다.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아버님이 하셨던 목회가 가장 진실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목회라는 확신이 든다.”

목회자 자녀로서, 국 목사는 결코 목사가 되지 않을 생각이었다. 열댓 명과 그의 가족들이 함께 장애인들을 섬겼고, 어머니께서 생계를 책임지시는 모습을 보며 그는 돈 많은 장로가 되는 게 꿈이었다. 그런데 대학교 때 아프리카 단기선교가 그의 계획을 틀었다.

“1.5세, 2세들과 브라질 교민과 연합해서 모잠비크와 남아공으로 단기선교를 떠났을 때 충격을 받았다. 그분들은 하루에 두 끼를 먹는데 한 끼는 약소하게 먹고, 한 끼는 티를 마신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들이 만족해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분들보다 많은 많은 걸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됐고, 저는 그 당시에 제 꿈은 돈 많은 장로가 돼서 돈을 많이 벌면 뭔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겠구나’, ‘돈이 아니라면 내가 무엇을 위해 내 인생을 바쳐야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돈이 인생의 목표에서 사라지니까, 그때 저희 아버님이 생각났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 말씀으로 권면해 줄 수 있다면, 그 일은 평생 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다.”

### 선교는 나의 DNA

선교지로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미국이 선교지라는 마음을 주셨다. 특히 1.5세와 2세들을 보며, 교회를 떠나는 1.5세, 2세들을 보며 이 확신은 더 굳어졌다. 그는 충현’선교’교회로 부름을 받은 것에 감사하다며, 선교는 그의 DNA 안에 있다고 말했다.

“2022년 3월부터 민종기 목사님과 함께 10개월간 동사 목회를 한 후, 12월 첫째 주에 충현선교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하나님께서는 제 청년 시절을 가장 기쁘게 보셨다고 생각합니다. 연륜이 부족하고 말씀도 부족했지만, 그때 드렸던 헌신의 마음을 아직도 쫓아가지 못한다. 저는 늘 마음가짐에서,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고 있는지 제 자신을 점검하며 가고 있다.”

충현선교교회에서 사역하며, 그가 가장 중요하게 붙드는 사역의 원칙은 ‘하나 됨’이다.

“이민교회를 오래 섬기면서, 겉으로 화려하고 멋진 것보다는 하나 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다양한 배경,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우리들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 됨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럼에도, 올해 우리 교회가 이제 40주년이 되는데, 40년이 되도록 하나 됨을 지켜왔다는 점에서, 그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고, 우리 목회자, 성도님들이 참 애쓰셨다고 생각한다.”

그가 이처럼 하나 됨을 원칙으로 삼는 데에는 그가 1.5세로 교회 안에서 자라면서, 윗 세대의 갈등과 분열이 결국 다음 세대의 교회에 대한 불신과 이탈로 이어지는 것을 목도했기 때문이다.

“제가 어렸을 때, 친구들이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았다. 교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갈등을 빚고, 힘들어지면 결국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더라. 그래서 제가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가장 큰 노력은, 우리 어른들이 정말 하나되어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부부 사이에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면 자녀들이 참 힘든 것 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 같다.”

###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한 3가지 제안 : 하나 됨, 세계관 교육, 신앙의 전수

1.5세로 성장하며, 대학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목도한 국 목사는, 다음 세대를 지키기 위해 3가지를 제안했다.

“교회가 분쟁이나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면, 다음 세대는 떠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 됨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다. 저희가 하나되고 서로 하나 됨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됨을 보여주게 되는데, 제가 목사아들로,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는데 어른들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이 안타까웠다. 아무도 희생하지 않고, 교회 안에 예수가 안 보이니, ‘내가 믿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혼란이 오게 되는 것이다. 저도 그런 부분을 경험했다.”

두번째는, 진화론을 비롯한 세속적 세계관의 도전으로부터 다음세대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다. 대학에서 화학을 공부한 국 목사는, 수업 시간에 창조론을 주장했다가 교수로부터 비판을 받았고, 과제를 제출할 때도 진화론적 시각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점수를 받을 수 없었다며, 이 세계관 싸움으로부터 다음 세대를 지키고 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모든 것을 진화론적으로 풀어서 과제를 내지 않으면 점수를 받지 못하니까 진화론적 세계관이 저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세속적 세계관 보다 더 확실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세번째, 국 목사는 언어적 격차로 인해 신앙의 전수가 끊긴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번 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있다. 저는 교육부에서 섬기다가 전임사역자로 새안장로교회에 가서 안수를 받게 되었다.거기서부터 제가 이제 한어권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다. 부교역자 시절을 21년을 한어권에서 경험하고 훈련을 받으며, 한국교회가 지닌 귀한 신앙의 전통을 배웠다.”

### EM과 KM으로 나눠진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나

“한국교회 30년을 되돌릴 수 있다면, 저는 EM과 KM으로 나눠진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냐는, 질문을 던진다. 그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끌어안고 우리의 신앙을 조금 더 전수해 줬어야 되는데 언어, 또 문화로 인해서 교회가 갈라진 것이 안타깝다. 앞으로 EM은 다민족 쪽으로 가면 좋겠고, KM은 앞으로 10년 안에 1.5세, 2세들까지 함께 예배를 드려도 어색하지 않게 되어야 한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 22:20)

마지막으로, 국윤권 목사는 그의 마음에 떠오르는 말씀으로 계 22장 20절을 꼽았다.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살아가지만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소망하고,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주디 한 기자

# 아이티 주교들, 폭력 사태 심화 속 평화 촉구 성명 발표

**“폭력 심고 평화 거두길 바랄 순 없다… 집권자들 행동 필요”**

아이티에서 수개월간 폭력이 이어지고 갱단이 수도 포르토프랭스를 장악하며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자, 현지 주교들이 평화를 호소했다.

아이티 주교회의 의장인 포르토프랭스의 막스 르루아 메시도르(Max Leroys Mésidor) 대주교는 가톨릭 자선단체인 ‘에이드 투 더 처치 인 니드’(ACN)와의 인터뷰에서 “이달 초부터 폭력이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전했다.

유엔은 “최근 몇 주간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집을 떠났으며, 공급망이 붕괴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폭력이 격화되자, 현지에서 일부 직원을 대피시켰다.

국제이주기구(IOM)에 따르면, 아이티의 70만 명의 국내 실향민 중 절반 이상이 어린이로 나타났으며, 유니세프는 “지난해 어린이 갱단 모집이 70% 증가했다”고 했다.

이에 포르토프랭스에 거주하는 메시도르 대주교를 비롯한 아이티 주교들은 성명을 내고 “집권자들이 나라의 평화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교들은 성명에서 “모두가 경계하고 있으며 위협을 느낀다. 투생 루베르튀르 공항은 폐쇄돼 나머지 세계와 단절됐다. 수도는 ‘마비 상태’”라면서 “폭력을 심어서 평화를 거두기를 바랄 수는 없다”고 했다.

이들은 “평화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동시에 선의를 가진 모든 사람의 노력을 요구한다”며 “우리는 도시를 통치하는 사람들에게 공동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중요한 사명에 따라, 안보를 재건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결의를 가지고 행동할 것을 호소한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는 정부 관계자, 시민사회 구성원, 무장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당사자가 지속적인 폭력 문제를 해결할 때가 되었다는 점을 인식하기를 촉구한다. 뭔가를 해야 한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2024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 562-903-4705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인터넷 홈페이지 www.mbts.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e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ks@mbts.edu

CPU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대학교 CALIFORNIA PRESTIGE UNIVERSITY
(구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 SEVIS I-20 발행
• 연방정부 학자금 보조
• 온캠퍼스과 온라인 동시 프로그램
(562) 926-1023, ext. 300 www.ptsa.edu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213)388-1000 Fax:(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 전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714)527-0691(0692) Fax:(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909- 687-1649 / KEB@GS.EDU
WWW.GS.EDU Korean-English Bilingual Program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UNIVERSITY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T.(626)857-2200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요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is.org
학교주소 | 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 aurahelio@gmail.com
전화 | 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www.itsla.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 MATS 선교학 석사 ▪ M.Div 목회학석사
▪ Th.M 신학석사 ▪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la.edu

# 이슬람 민병대, 알레포 점령… 시리아 기독교인들 위험 처해




ⓒPixabay

시리아 제2의 도시 알레포를 이슬람 민병대가 점령한 후 현지 기독교인들이 '심각한 위험'에 직면했다고 지역 교회 지도자들이 말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하디스트 집단을 포함한 민병대는 정부군이 철수한 후 통제권을 장악했으며 모든 크리스마스 장식을 철거하고 있다.

교황청 기관지 '피데스'(Agenzia Fides)에 따르면, 알레포의 마론파 대주교인 조셉 토브지는 무장 집단이 기습 공격을 한 후 '불확실한 상태'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토브지 대주교는 "이 곳에서의 삶이 다시 시작됐다. 상황은 평온했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닫혔다"고 말했다.

상점과 빵집은 영업을 중단했고, 시민들은 공격 전 경고가 없었기 때문에 물품을 비축하지 않았다고 한다. 토브지 주교는 "아무도 우리에게 경고하지 않았다"라며 "현재 기독교인을 표적으로 삼은 공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민병대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알레포를 점령한 사실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카네이트 워드(Incarnate Word) 연구소의 휴고 알라니즈 신부에 따르면, 알레포의 대부분 지역이 현재 이슬람 민병대의 통제 하에 있으며, 종교 지도자들이 본당을 방문하여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휴고 신부는 피데스에 "교회가 계속 열려 있지만 학생과 노인을 포함한 많은 주민들이 안전을 위해 도시의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고 말했다. 이라크 기독교 재단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무장 세력이 크리스마스 장식을 철거하고 포로로 잡힌 군인의 목을 베었다고 알렸다. 이 단체는 또한 알레포의 기독교인과 다른 소수 민족을 위한 기도를 요청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스위스에 소재한 인권 단체인 국제기독연대(CSI)는 성명을 통해 앞서 자브하트 알누스라(Jabhat al-Nusra)로 알려졌던 이슬람 무장단체인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Hayat Tahrir al-Sham, 이하 HTS)이 알레포를 장악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2014년 이슬람 국가(IS)가 모술을 점령한 것과 유사한 방식"이라고 말했다.

HTS는 과거 폭력적인 박해와 함께 엄격한 수니파 우월주의 이념을 강요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도, 알라위파, 시아파, 비종교적 수니파를 포함한 알레포의 다양한 종교 공동체에 두려움을 심어주었다고 CP는 전했다.

CSI의 국제 회장인 존 아이브너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특별 대표인 제임스 제프리 대사는 2021년 HTS가 테러 조직으로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워싱턴 중동 정책의 '자산'으로 비밀리에 기능해 왔다는 것을 인정했다"라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 캐나다 기독교인 67% "내 정신 건강 문제 알려져도 괜찮아"




ⓒPixabay

캐나다 기독교계에서 정신 건강 이슈에 대한 인식이 대체로 개선됐으나 낙인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의 교회 데이터 연구소인 '프로리싱 콩그리게이션스 인스티튜트' (Flourishing Congregations Institute, FCI)가 주최하고 암브로스대학교(Ambrose University)가 후원한 웨비나가 최근 '캐나다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 내 정신 건강과 질병에 대해 알아야 할 사항'을 주제로 총 4차례 진행됐다.

FCI와 교회정신건강사역(Sanctuary-Mental Health Ministries)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캐나다 전국의 교회 지도자와 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기독교 공동체 내 정신 건강과 질병의 영향'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웨비나에서 FCI의 조엘 티센(Joel Tissen) 이사는 "설문조사가 캐나다의 두 가지 핵심 영역, 즉 교회의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태도와 인식, 그리고 정신 건강을 위한 교회의 지원을 살펴 봤다"며 "이 수치는 샘플일 뿐 캐나다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를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티센 이사는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교회 지도자와 교인의 다양한 대응 방식에 관해 언급했는데, 여기에는 '정신 건강 문제를 일반적인 인간 경험의 일부로 보는 것'부터,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해 전혀 이야기하지 않는 것', '사랑·평화·희망·기쁨과 같은 기독교 교리를 받아들이는 데 장애가 되는 것', 혹은 '영적인 억압의 어두운 요소에의 대응' 등이 포함됐다.

티센 이사는 "우리가 정신 건강과 질병에 대해 어떻게 말해 왔는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정신 건강과 질병을 경험했든지 그렇지 않든지, 이것이 사람들의 경험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3분의 2는 정신 건강 문제를 일반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7%는 "다른 교인들이 내가 정신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28%는 "부끄러움을 느낄 것"이라고 했다.

76%는 "내가 정신 건강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교회의 다른 사람들이 알아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지만, 20%는 "당혹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응답자의 77%가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개인적 경험을 스스로 보고했으며, 이 중 60%가 다른 교회 교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도움을 요청한 사람 중 81%가 지원을 받았다고 답했다.

강혜진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어린이예배 주일 오후 2:00
장년기초성경공부 주일 오후 2:00
영혼의 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 월-금 오후 7:30
- 토 오후 3:00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 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562)606-2345, (424)445-807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00 (차세대예배 오전 9:15)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새벽예배 (월)온라인 Only 오전 6시
(화~토) - 오전 6:00
수요중보기도모임 온라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lden 코너)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말씀과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후 9:00
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50
Youth예배 오전 10:5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토요비전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com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수/금요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본당
주일2부예배 오전 9:30 본당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본당
주일4부예배 오후 1:31 비전센터
OMC 주일학교 오전 11:30 교육관 1층
OMC 중고등부 오전 11:30 교육관 4층
OMC소망부 오전 11:30 교육관 427호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본당
주중새벽기도회 온라인(Online)
수요중보기도회 오전 10:00 본당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 om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영어) 오전 10: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 3부예배(대예배) 오전11: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중보기도회 오후 2:00
김재연 담임목사
영생교회
1829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2-735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수요예배: 저녁 7시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라디오 방송설교
라디오서울 AM 1560
주일 아침 6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 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1:00
라티노 오후 5:00
GCEM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초등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본당/온라인
김창섭 담임목사
세계선교교회
927 S.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 388-1927 www.wmcl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10:50
한국학교 오전 9: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토요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대학청년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한현종 담임목사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 오전10:00
유초등부 오전11:00
중고등부 오전11:00
E.M(대,청) 오후 1: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30 (토)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주일 오전 10:00 하톤교회
4500 W. El Segundo Hawthorne, CA 90250
Tel. 310-706-7721
진건호 담임목사
주일 오후 1:00 가든그로브한인교회
13411 S. Euclid St. Garden Grove, CA 92843
주일 오후 7:00 웨스턴교회
439 S. Western Ave, LA, CA 9002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3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황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센터메디컬클리닉에서
함께할 주치의를 모십니다.
조이스 리
센터메디컬클리닉
플러튼점
(714) 519-3024
임유일
센터메디컬클리닉
가든그로브점
(714) 583-8569
송홍우
센터메디컬클리닉
로렌하이츠점
(626) 363-4661
김민성
김민성 내과
(213) 487-4141
(310) 710-7002
(562) 318-0810
임대순
바른병원
(213) 985-7777
황인용
황인용 심장내과
(714) 760-9988
(213) 528-1111
성동진
성동진 내과
(424) 551-3110
박 항
박항 내과
(213) 382-3663
김인자
김인자 내과/안과
(714) 562-5857
안우성
안우성 내과
(562) 916-5020
김학준
김학준 병원
(310) 324-4443
김영래
김영래 관절내과
(714) 594-6962
방재훈
방재훈 신장내과
(714) 534-3366
박수영
박수영 내과
(714) 523-3212
(714) 735-8880
단 손
단손메디컬센터
(714) 527-2240
잔 음
은혜병원
(562) 865-3738
신창은
신창은 내과
(714) 577-2340
김남주
김남주NP 클리닉
(714) 695-2388
강신욱
강신욱 내과
(213) 380-7077
박성수
박성수 내과
(818) 678-9875
프랭크 최
최선가정병원
(213) 277-5723
이익준
동부병원
(626) 913-8010
미래의 의료, 지금 여기서 만나다.
최상의 수준으로 만족시킬 최고의 시니어케어 전문 메디컬그룹
센터메디컬그룹
(888) 847 - 3098

문서선교를
#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윤성현** 담임목사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려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주일예배 오후 1:00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8 S Vermont Ave #214, Harbor City, CA 90710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주일1부예배 8:00am 주일EM예배 11:00am
주일2부예배 9:30am 수요찬양집회 7:30pm
주일3부예배 11:00am 토요새벽예배 6:00am
주일교육부예배 11:00am 주중새벽예배(온라인) 5:30am
**정유성** 담임목사
오렌지한인교회
643 W. Malvern Avenue, Fullerton, CA. 92832
T. (714) 871-8320 / www.okcrc.org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C(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 (행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밸가든구국재단 :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 954) 200-0875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 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 (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찬양예배 오전 11:00(수)
중보기도 오전 9:30(목)
제자성서 오전 9:30(금)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박신웅** 담당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금)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1부예배 오전 0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여성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청장년/교육부서 (토/주일) 새벽 6:00
**김종규**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714) 899-9191 / oc1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는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EM(Holy Wave) 오전 9:40 금요영성집회 저녁 7:30(금)
**우영화** 담임목사
LA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 목회 스트레스의 8가지 이유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Unsplash

크리스천포스트는 최근 조셉 마테라(Joseph Mattera) 박사가 쓴 '목회 스트레스의 8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조셉 마테라 박사는 뉴욕시에 있는 부활교회의 담임 목사이며, '미국 사도지도자연합(USCAL)'과 '그리스도언약연합(CCC)'을 이끌고 있다.

마테라 박사는 "목회 사역은 높은 소명이지만 도전으로 가득한 직책이기도 하다. 목사는 종종 교인들을 돌보고 양떼의 영적, 정서적, 신체적 웰빙을 돌보는 동시에 개인적인 압박을 헤쳐 나가는 임무를 맡는다"며 글을 시작했다.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요구 사항은 해결되지 않으면 스트레스, 번아웃, 심지어 도덕적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목회 스트레스의 8가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 1. 가족과 자기 자신에 대한 경계 부족

목회자들에게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사역 책임과 개인 생활 사이에 명확한 경계가 없다는 것이다. 많은 목회자들은 전화에 응답하든, 비상 상황에 대응하든, 교인의 필요를 돌보든 항상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낀다.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지 못하면 개인 및 가족의 필요를 소홀히 할 수 있다.

### 2. 모호성과 전이

목사는 종종 명확한 기대나 정의된 역할 없이 영적 가이드, 상담자, 관리자, 리더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모호함은 목사가 여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회중의 다양한 필요를 가장 잘 충족시키는 방법을 분별하려고 할 때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목사들은 교인들이 자신의 감정적 문제, 좌절 또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목사에게 투사하는 전이를 자주 경험한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는 것은 목회자 역할의 일부이지만, 이러한 전이는 감정적 고갈로 이어질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한 끊임없는 무게는 압도적일 수 있으며, 부족함이나 무력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목회자들은 자신의 역할, 기대, 한계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역할과 함께 겪게 되는 감정적 부담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멘토나 상담사와 같은 지원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 3. 시간 관리의 어려움

목회자들은 종종 설교 준비, 상담, 회의, 행정 업무, 개인 연구 등 여러 방향으로 끌려간다. 적절한 시간 관리가 없다면 이러한 책임은 압도적일 수 있다.

많은 목사들은 자신을 지치게 하는 일에 지나치게 시간을 보내서 영적 휴식이나 가족을 위한 시간이 거의 없다. 업무를 위임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우선시하고, 휴식과 성찰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등 효과적으로 시간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필수다.

### 4. 신체 건강을 소홀히 함

많은 목사들은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동안 자신의 신체 건강을 소홀히 한다. 긴 근무 시간, 나쁜 식습관, 운동 부족은 목사의 신체를 손상시키고 피로와 스트레스를 느끼게 할 수 있다. 신체 건강을 소홀히 하면 번아웃, 우울증, 질병과 같은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20절에서 우리 몸은 성령의 성전이며, 우리는 그 성전을 돌보도록 부름받았다고 상기시킨다. 목사는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고, 휴식을 취함으로써 신체 건강을 우선시해야 한다. 신체 건강은 정신적, 정서적 웰빙과 깊은 관련이 있다. 신체 건강을 소홀히 하면 전반적인 스트레스 부담이 더해질 뿐이다.

### 5. 스트레스 관리 계획 부재

사역은 본질적으로 스트레스를 수반하지만, 이를 관리할 계획이 없다면 스트레스가 축적되어 번아웃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많은 목회자들은 스트레스의 원인을 파악하거나 이를 극복하기 위한 건강한 전략을 개발할 시간을 가지지 않다.

스트레스 관리 계획에는 기도, 성경 묵상, 운동, 사랑하는 사람과 보내는 시간과 같은 일상적인 실천이 포함되어야 한다. 목사는 또한 자신을 지나치게 확장하는 특정 약속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고 그 결과에 대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취미, 운동 또는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과 같은 스트레스를 해소할 건강한 방법을 찾는 것은 스트레스의 영향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 6. 볼 앤 보울 증후군(Ball and bowl syndrome)

'볼 앤 보울 증후군'은 목사들이 끊임없이 많은 책임(balls)을 동시에 감당하면서 동시에 회중의 부담이라는 무거운 감정적 부담(bowl)을 지고 있어야 한다는 비현실적인 기대를 말한다. 이러한 역동성은 끊임없이 압도당하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상태로 이어진다.

이 증후군은 목사들이 교회의 모든 것에 책임이 있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지만, 이는 성경적 모델이 아니다. 에베소서 4장12절은 목사들이 성도들을 사역의 일을 위해 준비시켜야 한다고 가르치는데, 즉 목사들이 혼자서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회중의 다른 사람들과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는 의미다.

목사들은 위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 그들과 함께 이끌도록 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하면 교회의 모든 측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압박감이 완화되고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집중할 수 있다.

### 7. 좌식 생활 방식

설교 준비, 상담, 행정 업무는 종종 오랜 시간 앉아서 공부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좌식 생활 방식은 비만, 심장병, 우울증과 같은 신체 건강 문제에 기여할 수 있다.

인체는 움직이도록 설계되었으며,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산책하기, 일하는 동안 서 있기, 하루에 스트레칭을 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연습조차도 상당한 차이를 만들 수 있다. 목사는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하며, 이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에너지 수준을 개선하며 전반적인 웰빙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 8. 끊임없는 소셜 미디어 소비

오늘날의 디지털 시대에 소셜 미디어는 목회자들에게 축복이기도 하고 저주이기도 하다. 한편으로는 사역, 전도, 사람들과의 소통을 위한 플랫폼을 제공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는 소셜 미디어 소비는 스트레스, 불안, 심지어 우울증에 기여할 수 있다.

목사들은 온라인에서 존재감을 유지하거나 다른 목사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압박감을 느낄 수 있다. 이는 비현실적인 기대에 부응하려고 하면서 부족함을 느끼거나 압도당할 수 있다. 게다가 소셜 미디어에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보, 뉴스, 의견은 감정적으로 지치게 만들 수 있다.

최승연 기자

# “미국을 다시 경건하고 위대하게”



앤마리 맥린(Annemarie McLean) 작가. @https://stream.org/author/annemarie-mclean/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앤마리 맥린(Annemarie McLean) 의 기고글인 ‘미국을 다시 경건하게 만들다(Make America Godly Again: The MAGA America needs now)를 지난 30일 개제했다.

맥린 작가는 리버티 카운슬의 신앙 및 문화 작가이며 지난 2012년 공연 예술을 통해 복음을 전 국민에게 전달하는 국제적인 봉사 활동인 3D Missions를 설립했으며 젊은 여성들이 성경적 세계관에서 용기 있게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플랫폼인 Brave & Beautiful을 공동 설립했다. 다음은 기고글 요약문.

11월 6일 이른 아침, 도널드 J. 트럼프는 국민투표에서 승리하고 필수 선거인단 270명을 넘어 미국 역사상 가장 놀라운 정치적 컴백 중 하나로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트럼프는 비연속적인 임기로 선출된 단 두 명의 미국 대통령 중 한 명으로, 그로버 클리블랜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

트럼프가 지난 2016년 첫 대선 캠페인을 펼칠 당시, 그의 슬로건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MAGA)”가 미국인의 마음속에 각인되어 새로운 생명력을 갖게 될 줄은 몰랐다. MAGA는 단순한 선거 구호에서 벗어나 미국 정치의 거대한 운동으로 빠르게 발전했다. 이는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예외성과 위대함이 실시간으로 쇠퇴하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며, 국가를 바로잡기 위해 대담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대변했다.

이 네 단어는 또한 과거의 미국, 즉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언덕 위의 빛나는 도시”라고 표현했던 이상적인 미국으로의 귀환을 상징했다. 그곳은 가족, 신앙, 자유라는 핵심 가치를 통해 다른 국가들보다 우위를 점하던 나라였다. 1898년 파리 조약부터 1991년 말 냉전 종료까지의 짧은 한 세기 동안, 미국은 모든 다른 국가를 제치고 글로벌 초강대국의 지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미국의 이와 같은 급부상이 단지 일련의 승리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 이전에 미국의 기초에 내재된 더 깊고 근본적인 요소가 있었을까? 미국의 위대함을 만든 것은 무엇이었을까?

18세기 말, 미국은 현재의 초강대국과는 거리가 먼 신생 국가였다. 미국은 자유를 갈망하며 영국 제국의 식민지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 용기를 냈습니다. 하지만 13개 식민지가 영국 왕관으로부터 독립을 이루고 새로운 정부를 세우기 위해 보여준 집단적 결의 아래에는 겸손이 있었다. 미국 혁명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개입, 기독교의 변혁적 힘이 새로운 국가 건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현재 미국은 점점 기독교적 기반에서 멀어지고 있다. 낙태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 개정안이 여러 주에서 통과되고, 캘리포니아와 미네소타 같은 주에서는 부모의 권리를 약화시키고 젠더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등, 미국은 신앙과 도덕의 기반에서 멀어지고 있다.

이는 특히 다음 세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바르나 그룹의 조사에 따르면, Z세대의 29%만이 낙태가 도덕적으로 잘못되었다고 믿고 있으며,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Z세대의 약 3분의 1이 LGBT로 정체성을 밝히고 있다. 이는 하나님의 디자인과 사랑을 거부하는 행위로, “미국의 대분리”를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다.

지난 11월 9일,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에서 가장 크게 부족한 것은 기독교와 종교이며, 이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위대함은 그분의 선함 때문이다. 이제 미국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신의 뜻 아래 하나의 나라로, 다시 위대해질” MAGA가 진정으로 필요한 시점이다.

강혜진 기자

# 캘리포니아 교회 목사 무술로 도끼 든 침입자 제압



닉 네베스(Nick Neves) 목사. ⓒScreengrab/YouTube/NBC Bay Area

크리스천포스트(CP)는 캘리포니아의 한 목사가 추수감사절 아침 교회에 도끼를 들고 침입한 자를 무술로 제압하며 교회를 지켰다고 1일 보도했다. 해당 사건은 캘리포니아 앤티오크에 위치한 퍼스트 패밀리 교회에서 발생했으며, 용의자는 체포됐고 부상자는 없었다.

CP는 현지 당국에 따르면, 교회의 경보 시스템이 퍼스트 패밀리교회 담임목사인 닉 네베스(Nick Neves) 목사에게 침입 사실이 알려졌다고 밝혔다. 네베스 목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한 남성이 도끼로 교회의 창문을 깨고 있었으며 네베스 목사 그를 저지하자, 용의자는 도망치는 대신 주차장에서 네베스 목사와 몸싸움을 벌여진 것으로 밝혀졌다.

CP는 주짓수와 킥복싱 등 혼합 무술을 훈련받은 네베스 목사가 용의자를 제압해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붙잡아 두었다고 밝혔다. N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네베스 목사는 “멈추라고 소리치고 경찰이 오고 있다고 알렸지만, 그는 도망쳤고, 제가 그를 붙잡아 교회 주차장에서 몸싸움을 벌이게 되었다”고 전했다. 훈련을 활용한 네베스는 침입자에게 큰 부상을 입히지 않고 상황을 통제했다. 그는 “그를 땅에 눕혀 제압했고, 그가 여러 번 도망치려 했지만, 제가 체력적으로 더 오래 버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앤티오크 경찰서는 SNS를 통해 네베스 목사의 용기를 치하하며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도끼를 사용해 교회의 창문을 깨던 용의자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교회는 일부 재산 피해를 입었으나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네베스 목사는 이 침입 사건에 대해 “며칠만 더 일찍 왔더라면 축복받고 음식과 돌봄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안타까움을 표하며 “그러나 대신 창문을 깨고 재산을 훼손하며 교회의 사역에 해를 끼치는 길을 택했다”라고 말했다.

최승연 기자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 오전 6: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철야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 1부 07:30AM - 2부 09:15AM - 3부 11:00AM
EM 주일예배 - 1부 09:00AM - 2부 11:00AM
새벽예배 - 평일(월~금) 05:00AM - 토요 예배 06: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대예배 11:00 AM Youth (6th ~ 12th) 11:00 AM
아동부 (1~5학년) 11:00 AM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 7:30 PM
유아, 유치부 (2~5세) 11:00 AM 새벽기도회 화~토요일 6:00 AM
영아부 (24개월 이하) 11:00 AM
장수영 담임목사
언약 교회
은혜의 말씀, 사랑의 돌봄
1750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622-8815 https://covenantkoreanchurch.com


##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주일 1부 오전 9:00 주일학교 오후 12:30
주일 2부 오후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중고등부(아가페홀) 오전11: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영어부예배(믿음채플)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6:00
초등부 오전11:00 Youth 금요모임(금) 오후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어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주일 1부 8:00AM 중고등부 9:30AM/11:15AM
주일 2부 9:30AM 수요기도회 7:30PM
주일 3부 11:15AM 새벽예배 월~토 5:30AM
영아, 유아, 유치부 9:30AM/11:15AM
손창민 담임목사
에브리데이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17037 Devonshire St, Northridge, CA 91325
Tel. (818) 832-6628 www.churcheveryday.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대학부 오전 11:00
수요성경학교 오후 7:3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안정섭 담임목사
예수동행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366-0089 / www.ilovejcc.com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아노인팅예배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밸리채플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영성집회 저녁 7: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월금 오전5:30 / 토 오전6:00
주일 3부 영어예배 오후 1:3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818)363-5887
이충환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c.office1@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예배 오후 7:00
토요새벽 오전 5: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주일예배 오후 12:30
주일 EM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화요성경공부 오후 7:30
이건창 담임목사
발렌시아 샘물교회
25222 Wiley Canyon RD Newhall, CA 913211
Tel. (661)219-5434 www.sammool.org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교육부예배 주일 오전11:00
수요예배 저녁 7:0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11:30 수요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3225 S Rainbow Blvd #200, Las Vegas, NV 89146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10:15 (한국어, 스패니쉬)
주일예배 3부 오후12:15 (한국어,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강일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교육부예배 오전11:00
수요말씀기도회 오후 7:00
토요새벽예배 오전 7:00 E. lvkcchurch@gmail.com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주일예배 1부 오전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송삼용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101 S Rancho Dr, Las Vegas, NV 89106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EM예배 주일 오후 1: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화-토) 새벽 5:30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11:00
정공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6827 W Tropicana Ave #130, Las Vegas, NV 89103
T. (702) 742-3324 / thinkhappychurch.org

주일낮예배 오전 11:00(설교 동시통역)
주일저녁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6: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이병걸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제일침례교회
2625 Westwind Rd, Las Vegas, NV 89146
T. (702) 331-5026

주일 예배 오전 11:00 (영어 동시통역)
화요중보기도 오전 10:00
수요 예배 오후 7: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박은호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은혜와 사랑의 교회
2580 Montessouri St. #107, Las Vegas, NV 89117
T. (702) 539-6348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예배 7:00 PM
새벽기도 화~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우리좋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 woorijoeunchurch.com

크리스천 비지니스

CHRISTIAN BUSINES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 입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 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독일 슈바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레이너 역임

드림 미디어, 교회 음향 무료 컨설팅
✓좋은 소리는 예배에 은혜를 더합니다
✓소리는 예배당에 맞춰 세팅해야 합니다
1. 구독 서비스 2. 교회 방문 3. Solo시스템 4. 상담 및 교육
323-643-3033
dmediacontents@gmail.com

다양한 컨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각종모임 주문환영(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한 가득 ~~
미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찹쌀 오방떡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NATURE'S TREASURE
Innervis NUTRITION
건강을 선물하세요
부모님 선물로 딱이네~
기억력 개선
피로 회복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강화
항산화 작용
5 목 넘김이 쉬운
비타민 D3 5,000 IU
120 배지터블 캡슐 $8.80
D3 5,000 IU 선사인! 비타민! 햇빛을 보지 않고,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비타민D 결핍을 보충해 줍니다.
6
비타민 C500
180 베지터블 캡슐 $11.99
당신의 건강과 뷰티를 위한 필수 영양소! 필수영양소 비타민C와 칼슘, 그리고 노화 방지, 피부 개선, 항바이러스 등의 효능을 가진 로즈힙까지 함유된 제품입니다.
9
면역력
120 타블렛 $11.99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로즈힙을 사용하여 제조된 강력한 면역력 개선 제품입니다. 신체 면역체계의 다양한 세포 기능을 지원해 줌으로써 면역력을 기본부터 끌어올려 줍니다.
전화구매
213-434-1170




월드미션대학교는 디에스림 재단(DSLIM Foundation, 대표 임성진 목사)과 협력해 장애인을 돌보는 부모와 케어기버를 위한 "장애학의 이해와 사역" 수료과정을 개설했다. @기독일보

# WMU '장애학의 이해와 사역' 수료과정 신설

**봄학기 1월 20~5월 18일**

월드미션대학교는 디에스림 재단(DSLIM Foundation, 대표 임성진 목사)과 협력해 장애인을 돌보는 부모와 케어기버를 위한 "장애학의 이해와 사역" 수료과정을 개설했다.

지난 20일(수) 오전 11시 월드미션대학교 5층 스마트 강의실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WMU 이현아 교수는 이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이 프로그램은 신앙공동체가 장애에 관한 신학적, 윤리적 문제를 탐구하고, 장애인이 교회와 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돕기 위해 설계되었다"고 말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장애학, 장애인 신학, 장애인 복지 선교 등 최신 연구와 문헌을 검토하고 장애인 가정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할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2025 봄학기(1월 20일~5월 18일)에 ▶장애인 신학과 교회(강사: 이준우 교수,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장애학의 이해'(조한진 교수, 대구대학교 장애학과), 2025 가을학기(8월 말)에 ▶장애인 사역과 현장연구'(이종희 교수, 남가주밀알선교단 단장), ▶장애와 가정사역'(이현아 교수, 나성영락교회 이준혁, 안윤경 목사) 등이 개설될 예정이며, 관심이 있는 목회자, 선교사, 평신도, 커뮤니티 봉사자, 장애 자녀를 둔 부모 및 장애 사역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봄학기는 1월 말, 가을 학기는 8월 말 개강하며, 과목 당 8 주분의 강의가 제공된다. 수강자는 무들(Moodle)이라는 플랫폼을 통해 수업에 참여하기에 세계 어디에서든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다. 등록금은 1과목(1학점) 당 $150이며 (교회나 기관에서 등록시 $100.), 4 과목을 모두 마치면 WMU 총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되며, WMU 사회복지학과(BASW) 진학 시 3학점이 인정된다.

DSLIM Foundation은 개인과 지역 사회 역량 강화를 위한 비영리 단체로 문화, 복지, 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재단은 SAFE(Supporting Agency and Family Empowerment) 기관을 두고 있다. SAFE는 세미나, 워크샵, 리트릿 등을 통해 언어, 장애, 문화, 경제적 어려움을 포함한 다양한 요구사랑을 가진 개인과 가족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며, 자기 결정적 삶을 살도록 지원하고 있다.

주디 한 기자

**문의:** 213-388-1000
**이메일:** hyunalee@wmu.edu (이현아 교수)

# GMU '챗GPT 목회선교 지도사' 과정 열려

**국제미래학회, 인공지능 글로벌 교육원 업무협약 체결**

국제미래학회(회장 안종배)와 인공지능 글로벌교육원(원장 심현수)이 그레이스미션대학교(GMU, 총장 최규남)와 공동으로 미주 지역에서 첫 번째 '챗GPT 인공지능 목회선교 지도사' 과정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와 함께 세 기관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GMU에 국제미래학회와 인공지능 글로벌 교육원 미주본부를 설치했다.

이번 과정은 세계 최초로 시도된 목회·선교 분야의 인공지능(AI) 활용 교육으로, AI 시대를 맞아 목회와 선교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실제적인 AI 활용 방법을 교육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난 11월 26일부터 27일 GMU 교정에서 열린 이번 교육은 AI 활용 방법을 교육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GMU 소속 선교사, 목회자, 신학 교수 등 50여 명이 참석하여 챗GPT와 생성형 인공지능 12종을 활용하는 다양한 방안을 배우고 실습했다.

챗GPT 인공지능 목회선교 지도사 교육 과정은 △성경을 기반으로 한 성시(聖詩)와 CCM 작사·작곡 △AI 활용 성화 그림 및 영상 제작 △목회·선교를 위한 AI 멀티미디어 제작 △인공지능 활용 목회 선교 콘텐츠와 아바타 영상 제작 △인공지능 활용 목회 선교 애니메이션 제작 △인공지능 활용 외국어 소통 및 외국어 목회 선교 영상 제작 등 실전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AI 시대에 필요한 윤리적 기준과 AI 활용의 방향성을 성경적 관점에서 신앙적 소명을 갖고 선용하는 방법도 함께 제시했다.

이번 과정은 국제미래학회와 GMU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진행됐으며, 양 기관은 AI가 가져올 변화를 AI 교육을 통해 신앙적 관점에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목회와 선교 분야의 AI 선용 가능성을 확장하는 데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과정 수료자들은 등록 민간자격증인 '챗GPT 인공지능 지도사 1급(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기관 국제미래학회)'을 취득했다.

김민선 기자



챗GPT 인공지능 목회선교 지도사 과정 수료 기념사진. @국제미래학회

# '새롭게 하소서' 팀이 함께하는 힐링 콘서트

12월 13일(금) 8시, 14일(토) 7시에 크리스천을 위한 힐링 토크 콘서트 'Beloved'가 라미라다 극장(La Mirada Theatre)에서 열린다.

이번 Beloved 콘서트는 새롭게 하소서 진행자들(주영훈, 박요한 목사, 가수 송지은, Singer song writer 조범진 교수)과 러빙워십의 조셉 리 목사의 토크 형식으로 진행되며, 음악이 첨가된다.

음악적 부분은 라라랜드 월드투어 쇼에 참여한 트로이 최(최경태) 감독이 총괄하며, 기타리스트 조범진 교수, 마이클 잭슨, 브리트니 스피어스, 스티비 원더, 휘트니 휴스턴 등과 함께 음악 작업을 했던 밴드, 미국 가스펠 그룹도 참여한다. 최고의 실력을 갖춘 팀이 새로운 차원의 공연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콘서트는 Loving Worship이 주최하고 주관한다.

김민선 기자

**티켓 구입:** https://lamiradatheatre.com/ **문의:** 213.357.1565



# [사설] 계엄 선포와 해제, 민주적 리더십의 위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11시에 갑자기 비상계엄을 선포해 나라 안팎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그러나 국회가 4일 새벽 재적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이를 윤 대통령이 즉각 수용함으로써 비상계엄령은 선포 6시간 만에 해제됐다.

헌법 제77조 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런 헌법 조항에 근거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시기인가에 대해선 많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간부 3명에 대한 탄핵 절차에 들어갔다. 윤 대통령으로선 현 정부를 정치적으로 무력화하고 사실상 권력을 넘겨받으려는 시도로 여길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판단이 비상계엄 선포의 결정적인 동기로 작용한 게 아닐까 싶다.

민주당은 윤 정부 출범 이후 국회에서 22건이나 탄핵 소추를 발의했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에도 10명째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야당의 행안부 장관과 검사 탄핵 소추가 잇따라 헌법재판소에 의해 기각됐음에도 계속해서 방통위원장, 감사위원장, 중앙지검장 탄핵을 추진하자 이를 입법부의 행정 권력 무력화 시도로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정치적 난맥상을 비상계엄으로 틀어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큰 오판이다. 지금이 과연 국가비상사태 시기인가에 대한 논란을 떠나 대통령이 국회의석 과반수 찬성이면 해제해야 하는 비상계엄이 먹혀들 것으로 생각한 게 문제다. 결과적으로 이 시기에 꺼내든 대통령의 계엄 카드가 야당의 공세로 인해 야기된 정치적 수세를 돌파하기 위한 자위 수단으로 비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모두 16번의 계엄령이 선포됐다. 그때는 민주화 시기 이전이라 군을 장악한 군사정부가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이를 활용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민주주의가 깊게 뿌리 내리고 어느덧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이런 시기에 정치인뿐 아니라 국민 생활 전반을 통제하는 계엄령 선포는 국가 경제와 국제 신인도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제 사회적 타격이 아닐 수 있다. 정말 온 국민이 대통령의 결단을 우국충정으로 받아들이겠는가 하는 점이다. 그 대답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한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윤 대통령은 4일 새벽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 계엄을 해제한다"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근거를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표현했다. 여기서 윤 대통령이 염두에 둔 반 국가세력이란 정부와 검찰을 겁박하는 야당과 민노총 등의 세력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윤 정부가 출범한 후 야당은 정부가 가는 방향에 수없이 딴지를 걸어왔다. 아예 행정 무력화를 시도하는 등 협치를 완전히 상실했다. 결과적으로 이런 야당의 폭주에 거부권으로 일관해 온 대통령의 부정적인 인식이 오늘 사태의 단초를 제공했을 수 있다.

하지만 야당을 반 국가세력으로 지칭하고 적으로 돌린 대통령의 인식은 더 큰 문제다. 이는 국민의 눈에 국회의 입법 권한에 대한 도전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거대 야당이 수를 이용해 입법권을 남용하고 탄핵을 남발했더라도 이는 정치의 영역 안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지 한밤중에 군사력을 동원하는 초법적 수단으로 막으려 했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를 빌미로 윤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자진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연 뒤 발표한 결의문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 무효이자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며 "이는 엄중한 내란 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가 야당의 폭주가 원인을 제공한 건 분명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이 심야에 비상사태를 선포한 건 법적으로나 국민 감정상 적절하다 할 수 없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을 둘러싼 측근의 잘못된 상황 판단으로 이런 사태가 빚어진 것이라면 반드시 국민이 납득할만한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하며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농단, 예산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의 이런 요청은 계엄선포 전에 했어야 했다. 결과적으로 야당에게 탄핵의 명분만 안겨준 이번 사태는 대통령의 상황인식에 따른 판단 오류가 민주적 리더십에 어떤 위기를 초래할지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구봉주 칼럼**

# 복음주의



구 봉 주 목사
감사한인교회 담임

"복음주의"(evangelicalism)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는 신약성경의 "복음"(Good News, 그리스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하였으며, 역사적 발전 과정을 통해 신앙 운동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초대교회 이후 15세기까지 기독교는 타락과 부흥을 반복했으나, 결국 쇠퇴의 길을 걸었습니다. 정치, 경제와 결탁하였고, 그 바람에 세속주의가 만연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는 그저 사람들과 국가들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포섭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예를 들어, 십자군 원정은 이슬람 나라들을 무력으로 제압함으로써, 이 땅에 기독교 복음을 강제적으로 퍼트리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의도로 벌어진 전쟁이었습니다. 이후, 기독교가 유럽 전체의 정치 사회 문화를 장악하면서, 구교는 스스로 "범기도교적, 폭이 넓은"이라는 거창하면서도 애매모호한 의미를 지닌 카톨릭(catholic)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때도 여전히 무력을 통한 복음 전파의 시도가 있었고, 기독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결탁하며 급속도로 타락해갔습니다. 이에 마틴 루터와 존 칼뱅과 같은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의미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복음주의 운동의 시작이었던 셈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슬로건으로 전 유럽에 종교개혁의 바람이 불었고, 지금의 신교, 개신교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틴루터를 통해 시작된 개혁주의 교단 루터교는 이후 100년이 채 지나지 않아 스콜라철학과 같은 인간의 이성을 믿는 지성주의가 스며들면서, 원래의 모습과 전혀 딴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나치게 이성적인 경직화 현상을 겪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후 여러 세기가 지나면서, 18-19세기에 다시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났는데, 바로 존 웨슬리, 조나단 에드워드, 조지 휫필드와 같은 분들을 통해 영국과 미국에 일어난 대부흥 운동들이었습니다. 이때,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소명을 받아 세계 선교에 헌신하였습니다. 이후 19-20세기에는 D.L무디, 찰스 스펄전, 20세기 이후에는 빌리 그래함을 통해, 복음주의 부흥운동의 명맥은 계속 이어져왔습니다.

이제 21세기가 되었습니다. 21세기 기독교와 복음주의의 현주소는 탈교회화와 인본주의입니다. 기독교가 지켜왔던 교리와 성경적인 신념이 모호해져, 사실상 신앙을 떠난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같은 이상한 복음주의를 에큐메니컬이라 부릅니다. 에큐메니컬이라는 단어는 "세상 전체, 온 세계, 모든 이의 일치와 화합"을 의미합니다. 즉, 기독교라는 이름 하에 다양한 지식과 도덕과 윤리 문화 심지어 다른 종교의 좋은 면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무척 좋은 표현인 듯하지만, 매우 위험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자칭 복음주의자라며,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 중에 진리를 떠나, 세상의 가르침과 섞인 기독교를 신봉하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주장 가운데, 하나가 마치 교회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가난한 자를 돕는 사회 정의를 외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옥합을 깨트려 주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에게 "이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데, 왜 향유를 낭비하나?"고 말했던 가룟 유다처럼, 사회의 정의 회복,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면서, 사실은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진리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사회적 약자라 인식되는 성소수자들을 편에 서게 되고, 급기야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땅에는 정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 모두가 죄인이고, 그 죄악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구원을 받게 하고,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또 그 말씀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역사 만이 신앙과 삶을 회복케 한다고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주의는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서는 것이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믿되, 그 역사는 진리에 바로 서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진정한 복음주의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복음주의의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성도들이 진리 앞에 떨며,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이 회복되는 부흥의 날이 오길 기도합니다.



# 2024년 하반기 주님의사랑세계선교센터 선교소식




인도 신학교 학생들의 졸업식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1. 멕시코 선교 소식**

주님의사랑세계선교센터(대표 서사라 목사)는 지난 3월 교회 건물이 없어 들에서 예배를 드리는 멕시코의 한 교회에 교회 건물을 건축해 주기로 했다. 교회 건축은 7월부터 시작돼 이번 12월에 완공될 예정이다. 멕시코 사람들은 예배에 매우 열정적이다.

그러나 교회 건물 없이 들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음악시설도 없고 가사를 띄우는 프로젝터 등도 없고 마이크 및 강대상도 없어서 참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담임목사를 비롯해 성도들은 교회 건축 소식에 너무나 기뻐서 눈물을 흘렸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이번 12월에 완공될 교회 모습이 매우 기대된다.

**2. 인도 선교소식**

(1) 첫째는 어린이 방과후교실 소식이다. 주님의사랑세계선교센터에서는 인도의 북부지역 편잡 지역에 40개의 어린이 방과후 교실을 운영 중이다. 한 방과후교실의 어린이 수는 평균 약 20명이다(많은 곳은 50명도 넘는다).

인도에서의 방과후교실은 굉장히 강력한 전도 방법이다. 한 예로 주님의사랑세계선교센터에서 2019년 처음 방과후교실을 시작할 때에 예수 믿는 아이들의 수가 약 200명이었는데, 방과후교실 운영 2년 후에 다시 조사했더니 900명으로 늘어났다. 이것은 엄청난 증가였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무료로 방과후교실을 운영해 주니 2년 동안 힌두교를 배경으로 하는 부모들이 2,000명 이상 교회에 등록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전도의 폭발이었다.

지금은 우리 선교센터가 방과후교실을 운영한 지 5년이 됐다.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어린아이들과 부모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에 등록했다. 인도는 현재 바깥에서 외국인이 전도를 못하게 돼 있다. 그리하여 어린이 방과후교실이 인도 영혼들의 추수에 큰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다. 인도는 13억의 거대한 인구로 현재 영혼추수기에 있다. 조금만 노력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에 나온다. 방과후교실 운영은 굉장한 전도의 방법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내년 5월부터는 남쪽의 오리사 지역에 이 방과후교실을 넓혀갈 생각이다. 이러한 어린이 방과후교실 운영은 우리가 매월 방과후교실 선생님들의 월급과 어린이 간식보조를 공급함으로 가능하다. 그리고 학생들은 철저한 출석보고로 관리되고 있다.



인도 신학교 학생들의 졸업식



인도 신학교 학생들의 졸업식

(2) 둘째는 인도선교에서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 건축을 도와주고 있다.

주님의사랑세계선교센터에서는 현재 4번째 교회 건축을 도와주고 있다. 도와 주는 방식은 먼저 자신들이 지을 땅을 마련하면 주님의사랑세계선교센터에서 5,000 달러(약 7백만 원)을 보내 주어 교회 건축을 시작하게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성도들이 합심하여 지어나가게 한다. 그러나 꼭 필요할 때에는 더 지원하여 주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리하여 현재 방과후교실을 하고 있는 Neeraj 현지 목사의 교회 건축을 도와주고 있다.

(3) 셋째는 신학교 학생들(약 24명)의 식료품비를 매달 보내주고 있으며, 특히 남학생들의 기숙사 건축을 도와주고 있다. 우리 선교센터의 도움으로 많이 건축됐으나, 이번에는 창문과 문을 달기 위하여 또 선교헌금을 보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중이다. 이 건물이 완공되면 남자 신학생들의 기숙사를 '바울의 집'(Paul's house)이라고 명명하기로 했다. 이 건물은 3층으로 건축되고 있고, 각 층마다 상당한 넓이의 공간들이 확보되고 있다. 이 건물의 완공을 위해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다.

**3. 나이지리아 우물 파기 프로젝트**

지난해 주님의사랑세계선교센터에서 중아공(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서 깊이 60m까지 내려가는 우물(Bore holes)을 3개 파서 맑은 물이 나오게 해 주었다. 중아공은 비행기에서 내려 차로 이동하는 데 포장된 도로가 한 군데가 없고 다 흙인 데다가 수도라는 도시에 수도 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는 매우 가난한 나라로서, 우리나라 1950년대를 연상케 하는 나라였다. 그들은 비가 오면 모두가 다 황토물로 강물을 이루는데, 이 황토물을 길러다가 흙을 가라앉힌 물을 식수로 먹는다. 물 때문에 그들의 평균 수명이 55세라고 하였다. 여기에 우물 하나 60m 깊이로 파는 데 10,000 달러(약 1,400만 원)가 들었고, 하나 파면 약 1만 명이 그 맑은 물을 평생 먹을 수가 있다고 하니 비싼 것은 아니었다. 앞으로 더 파 주어야 한다는 마음이다. 한없이 잘 먹고 잘사는 한국과 미국에서 이들에게 더 우물을 파 주기를 원한다.

또 2024년 5월 나이지리아를 방문해 보니 물이 부족한 지역이 많아 주님의사랑세계선교센터에서는 우물을 6개 파고 난 후 다 교회와 연결시켜 주었다. 그 후 2024년 10월부터 나이지리아의 물이 매우 부족한 외딴 섬 지역에 우물 10개를 파 주고 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물이 너무나 풍족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풍족한 우리가 늘 가난하고 못 먹고 못 마시는 그들을 돕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나누겠다고 하셨다. 그 때 주님께서는 남에게 베풀지 못하고 자신의 배만 불린 자들은 염소로 구분하여 영벌에 들어가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자신만 배불린 것이 아니라 늘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면서 산 자들은 양으로 구분하셔서, 창세 이후로 그들을 위해 준비된 나라를 상속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그 때 양들로 구분된 자들이 주님께 물을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먹이게 하였고 마시게 하였고 옷을 입혀 드렸고 아프실 때에 돌아보았다고 하시나이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형제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 25: 31-46 참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난 후 그것을 어디에 쓰는지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모두는 이 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래야 저 천국에서 상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눅 6:38),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마 6:19-21),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마 6:24). 우리는 우리에게 먹고 입을 것 이상으로 물질을 주셔서 늘 물질이 없는 가난한 자들이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의 상이 하늘에서 크기 때문이다.

**4. 해외 목회자 세미나 인도**

매년 5월과 10월 서사라 목사는 나이지리아,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서 목회자와 리더들을 위한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각 나라에서 평균 3일씩 수백 명을 모아 놓고 진행한다. 이유는 이 마지막 시대를 알리며 그들을 회개시켜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 깨어 있게 하고 준비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가 먼저 가든 주님께서 먼저 오시든, 우리는 곧 하나님 앞에 선다. 그러므로 우리는 곧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먼저 목회자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시키고 깨어나게 해야 한다. 그러면 그들이 각각 그들의 교회로 가서 자기 성도들을 깨울 것이기 때문이다.

각 나라에서 세미나는 대개 3-4일씩 아침 저녁으로 진행되며, 집회 중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깊은 회개가 터질 뿐 아니라 세미나를 듣는 중, 혹은 안수기도를 받고 나서 병 고침을 받는 자들이 많다.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는 자들도 있다. 집회 중에 하나님의 역사는 대단하다. 이것은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막 16: 21)는 말씀과 일치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역사는 주님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김보겸 선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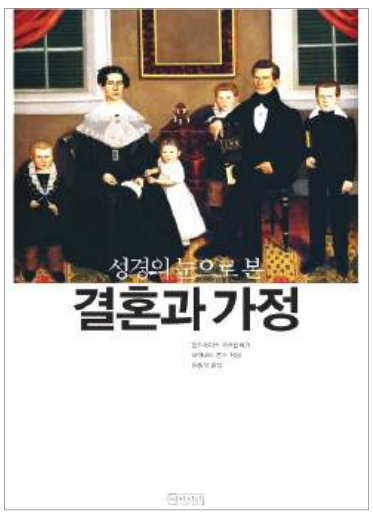
인도네시아 집회



인도네시아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하나님이 쓰신 결혼과 가정 설명서

# 낙태, 피임, 인공수정까지… 결혼과 가정에 대해 정리




**성경의 눈으로 본 결혼과 가정**

**안드레아스 쾨스텐버거, 데이비드 존스 | 윤종석 역**
**아바서원 | 552쪽 | 27,000원**

**결혼과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창조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꼼꼼하게 추적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궁금했던 많은 문제를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책이다.**

**오늘날 현대 사회와 교회가 마주한 결혼과 가정과 관련된 첨예한 쟁점을 철저히 성경적으로 다룰 뿐 아니라 저자들과 다른 여러 관점과 견해들도 소개함으로써 독자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록 돕는다.**

D. A. 카슨에게 지도받은 신약학 교수 안드레아스 쾨스텐버거와 사우스이스턴 침례신학대학원 기독교 윤리학 교수 데이비드 존스가 함께 쓴 〈성경의 눈으로 본 결혼과 가정〉은 결혼과 가정에 관한 성경 백과사전과 같은 책이다.

결혼의 기초부터 구약과 신약이 설명하는 결혼, 결혼의 본질과 섹스의 역할, 구약과 신약의 가정,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 독신의 은사, 동성애, 이혼과 재혼, 교회 지도자의 자격, 하나님-결혼-가정-교회, 주 안에서 이루는 만물의 통일 등, 결혼 및 가정과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주제를 성경적으로 다룬다.

'성경적'이라는 말을 더 확실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겠다(모두가 '성경적'이라는 말로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기 때문이다). 쾨스텐버거는 Biblical Foundation이라는 재단을 세운 대표자이다. 성경이 무오하고 하나님의 권위가 담긴 절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 사회 전반을 세우는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가진 인물이다.

이 책은 마스터스 신학대학원에서 성경적 가정을 배울 때 사용한 교재 중 하나였고, 2004년 초판으로 나온 것을 2010년에 개정한 책을 2016년 아바서원에서 펴낸 것이다.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전체 552쪽 중 373-551쪽까지, 약 32% 분량이 각주와 참고할 자료 및 찾아보기 정보라는 것이다.

사실 두 저자가 다루는 주제는 오늘날 기독교 내에서도 많은 이견과 논쟁 중에 있다. 그래서 독자는 이 방대한 자료를 활용해, 충분히 성경이 말하는 결혼과 가정이 무엇인지 스스로 연구해 볼 수 있다. 저자들이 본문에서 주장한 성경적 결론에 충분히 설득력이 있지만, 반대하는 입장에 있거나 확신이 없는 경우 저자들이 제공한 자료가 매우 유익한 자료가 될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책은 복음주의 관점을 견지한다. 저자들은 이런 신념으로 책을 썼다: "결혼과 가정은 인간의 발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발상이며, 따라서 그분의 사용 설명서 없이 결혼과 가정에 임하는 사람은 위험을 자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을 수 있다"(23쪽).

하지만 기독교 내부에서 '그분의 사용설명서'를 다르게 읽고 해석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쾨스텐버거와 존스는 주요 해석들을 각각 평가하고, 굉장히 합리적인 논증으로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견해를 지지한다.

독자는 저자가 다루는 방식을 보면서 절대로 선입견이나 전통에 관한 그들의 충성심 때문에 그들의 결론을 주장하려 한다는 인상을 받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성경 전체의 가르침과 특정 본문 자체의 주장이 가장 자연스럽고 분명하게 그들의 결론에 이르게 한다는 것에 충분히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또한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이다. 낙태와 임신을 다룬 장에서 저자들은 심도 있게 피임 방법 중 어떤 것들은 왜 낙태와 유사하게 다루면서 경계해야 할지 설명하고, 인공수정 등의 방식으로 임신을 시도하는 것에 관해 현대 의학의 발전에 감사하며, 무분별하게 이용할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중요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올바르게 제안한다. 또 이혼과 재혼을 논할 때, 성경이 이혼을 무슨 근거로 금하고 있는지 성경 전반적 가르침을 근거로 설명하고, 신약 성경이 밝힌 '예외 조항'에 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낸다. 부록에서는 '예외 조항'과 바울의 특별 지침을 다루면서, 훨씬 더 많은 근거를 제공한다.

두 저자는 "이 책에서 다루어진 까다로운 논란거리들에 대해서는"이라고 마지막으로 말하면서, "이 책에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될 만한 부분은 그분이 사용해 주시고, 그분의 완전한 지혜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우리 모두의 결혼과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언제나 더 큰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도한다"라고 끝을 맺었다(35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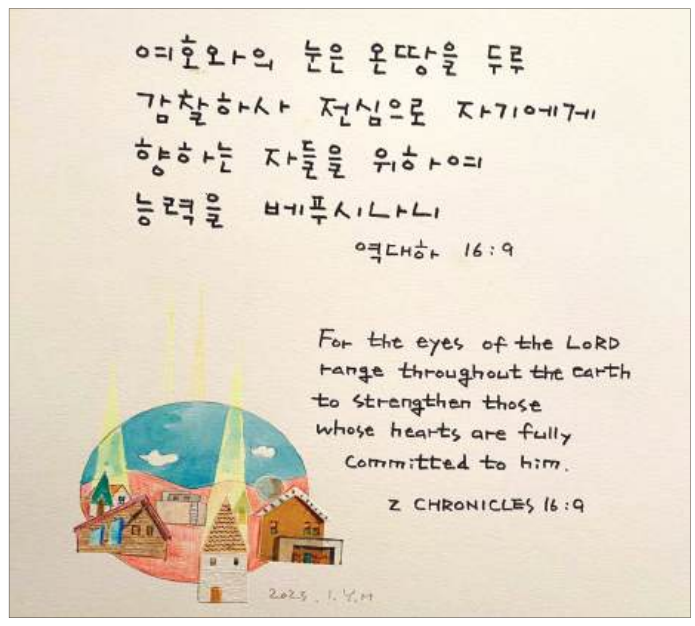
▲ⓒ픽사베이

두 저자가 내린 결론처럼 결혼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지나갈 세상의 외형이다(고전 7:31).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결혼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받은 은사를 따라 독신으로 섬길 수도 있다.구약에서 결혼은 필수처럼 여겨졌지만(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약에서 결혼은 독신과 마찬가지로 선택이다. 그리고 종말엔 결혼이라는 외형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와 혼인한 성도가 영원히 친밀한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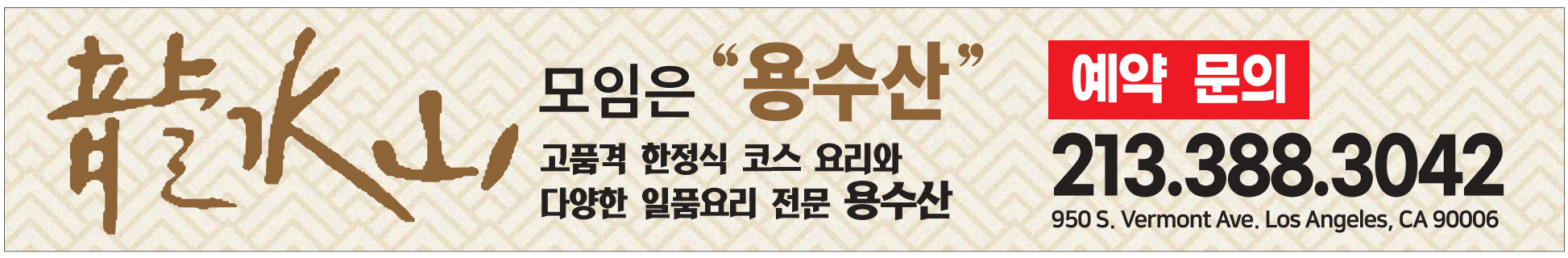
결혼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성경은 침묵하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서를 제공한다. 이 책을 접하는 모든 독자가 하나님의 설명서를 기초로 결혼과 가정을 견고하게 세우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그분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간구한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 **금주의 말씀 묵상 | 김영희 권사**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웹툰 기반 시리즈 〈정년이〉 (1)

# 〈정년이〉: 한국형 페미니즘과 폐쇄적 여성우위, 그리고 동덕여대 사태

## 여성 주도 활동 아무 문제 없지만 남성 역할 배제가 목적인 게 문제 1950년대 여성 국극 형식, 한국형 페미니즘 이념 정당화 명분 제공

**페미니즘 발흥: 페미니즘, 선진국 진입의 증표**

〈정년이〉는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삼는, 최근 우리 문화계에서 각광받는 페미니즘을 반영한 드라마다. 시대 배경은 한국전쟁 휴전 직후 서울, 여성국극단의 예술혼과 인정 투쟁을 주된 서사로 삼는다.

여성국극이란 1940년대 여성 소리꾼들이 모여 시작한 일종의 연극으로 판소리, 춤, 연기를 종합한 한국식 뮤지컬이었다. 이 독특한 연극 양식은 195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영화와 텔레비전 시대가 도래하며 예술계에서 자취를 감췄다.

〈정년이〉는 천재적인 음악과 연기 재능을 갖춘 소녀 윤정년(김태리 분)이 가족을 떠나 서울에서 국극 주연배우로 성장해 가는 과정을 중심서사로 삼고 있다. 이 작품은 전형적 성장서사 드라마로 주인공 윤정년이 고아나 다름없는 처지, 전쟁으로 황폐해진 나라, 그리고 열악한 예술활동 환경 속에서 주위 동료들과 경쟁하는 동시에 협력하며 자기 꿈을 개척해 나가는 감동적인 서사를 선보인다.

원작 웹툰의 스토리를 담당한 서이레 작가는 〈정년이〉와 관련된 인터뷰에서, 이 작품의 집필 의도가 여성 중심적 인간 이해의 선포와 변증에 있다는 것을 누차 강조했다. 작품 전체가 한국 페미니즘에 대한 헌사라고 볼 수 있다. 한국 페미니즘은 1990년대 시작된 3세대 페미니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전까지 한국 사회는 사상적으로나 구조적으로 페미니즘을 받아들이고 사유할 만한 사회적 토양을 갖추지 못했다. 1980년대까지 대한민국 사회에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개발독재 산업화 시대의 빠른 사회변화, 유교적 전통이 강하게 살아있는 가족문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여성 중심적 인간 이해가 자리잡을 만한 여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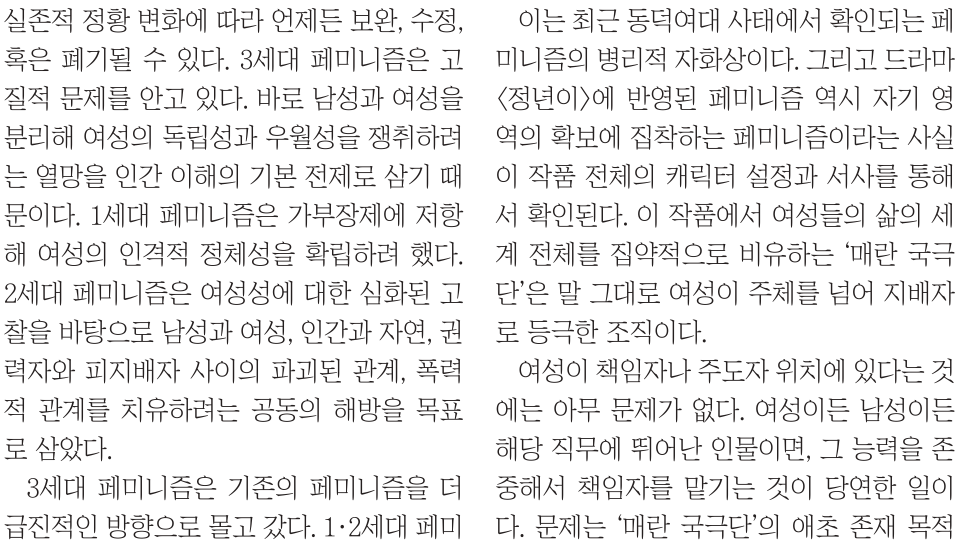
페미니즘은 선진화된 국가에서 발흥한다. 여성들이 충분한 경제적 자립을 갖출 수 있을 만큼 3차 서비스 산업이 발전된 사회에서 페미니즘이 활발하게 논의된다. 문제는 3차 서비스 산업만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고 국민들을 먹여살릴 만한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기축통화를 가지고 전 세계 금융 동향을 좌우하거나 특별한 브랜드 파워나 문화적 역량을 가진 3차 산업 생산자를 다수 확보하고 있는 과거 제국주의 열강들, 오늘날 서방 및 자본주의 선진국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남성들이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의 중심이 되는 1차 산업(농업, 어업, 축산업 등) 및 2차 산업(공업, 광업, 건설업 등)을 핵심 산업기반으로 삼고 있는 나라에서는 여성 인권 신장이 쉽게 이뤄질 수 없다. 애초 여성들에게 다른 권리를 주더라도 자주적인 경제력이 없으면 별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근자에 우리 사회에서 페미니즘이 사회 전반의 주목을 받는 이슈가 되고 문화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세태는 그만큼 한국이 선진국에 근접한 산업 구조와 기반을 구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런 경제적 역량이 과연 앞으로도 유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여기서 대한민국이 더 고차원적 3차 산업 기반(혹은 4차 산업 기반) 경제구조를 갖추려면, 서방 선진국들에 버금가는 자본 동원력, 인구, 그리고 브랜드 파워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는 인구 겨우 5천만 명에 그리 가치 있는 자원도 없고 영토마저 협소한 국가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950년대 유행했던 여성 국극을 둘러싼 여성 예술인들의 성장과 애환을 그린 드라마, 〈정년이〉. ⓒtvN



근자에 우리 사회에서 페미니즘이 사회 전반의 주목을 받는 이슈가 되고 문화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세태는 그만큼 한국이 선진국에 근접한 산업 구조와 기반을 구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tvN

**페미니즘 급진화: 한국의 통속적 페미니즘, 3세대 페미니즘 급진화의 표본**

그래서 한국의 페미니즘은, 향후 국가 발전 동향을 생각해볼 때,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외한 모든 인간의 사상체계가 그러하듯, 페미니즘 역시 그 자체로 완전무결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한 사회의 실존적 정황 변화에 따라 언제든 보완, 수정, 혹은 폐기될 수 있다. 3세대 페미니즘은 고질적 문제를 안고 있다. 바로 남성과 여성을 분리해 여성의 독립성과 우월성을 쟁취하려는 열망을 인간 이해의 기본 전제로 삼기 때문이다. 1세대 페미니즘은 가부장제에 저항해 여성의 인격적 정체성을 확립하려 했다. 2세대 페미니즘은 여성성에 대한 심화된 고찰을 바탕으로 남성과 여성, 인간과 자연, 권력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파괴된 관계, 폭력적 관계를 치유하려는 공동의 해방을 목표로 삼았다.

3세대 페미니즘은 기존의 페미니즘을 더 급진적인 방향으로 몰고 갔다. 1·2세대 페미니즘이 여성 인권 신장과 여성성 재평가에 어느 정도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페미니즘이 살아남으려면 여성들에게 그보다 더한 성과를 낸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다.

그래서 이 때부터 페미니즘은 오로지 그 사상의 자체 존속을 위해, 그 사상으로 연명하는 학자들과 사회활동가들의 필요에 의해 급진화·과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게 된다. 이에 남성을 공생공존의 파트너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투쟁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페미니즘이 대중에게 널리 퍼지게 되었다. 깊이 있는 철학적 숙고가 배제된, 오로지 과도한 피해의식만 남은 '통속적' 페미니즘이 득세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한국의 페미니즘 역시 충분한 학문적 숙고와 고찰이 결여된, 오로지 대중의 시선을 사로잡아 자체적 생명력을 유지하는 데만 몰두하는 방향으로 굳어지고 있는 듯하다. 이를 위해서는 그 어디로부터도 위협받지 않는 페미니즘만의 자체적 영역을 확보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 남성을 완전히 배제한 사회적 영역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최근 동덕여대 사태에서 확인되는 페미니즘의 병리적 자화상이다. 그리고 드라마 〈정년이〉에 반영된 페미니즘 역시 자기 영역의 확보에 집착하는 페미니즘이라는 사실이 작품 전체의 캐릭터 설정과 서사를 통해서 확인된다. 이 작품에서 여성들의 삶의 세계 전체를 집약적으로 비유하는 '매란 국극단'은 말 그대로 여성이 주체를 넘어 지배자로 등극한 조직이다.

여성이 책임자나 주도자 위치에 있다는 것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해당 직무에 뛰어난 인물이면, 그 능력을 존중해서 책임자를 맡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문제는 '매란 국극단'의 애초 존재 목적 자체가 남성 역할을 배제하는 데 있다는 점이다. 이 작품 안에서 남성은 그야말로 여성의 주체적인 삶에 무가치하거나 오히려 훼방을 놓는 존재로만 묘사되고 있다.

여성 국극이라는 예술 형식은 이 여성과 남성의 엄밀한 분리, 여성의 지배적 위치 장악이라는 한국형 페미니즘의 이념을 정당화하는 최적의 명분을 제공한다. 그런데 서이레 작가가 하나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1950년대 당시 여성 국극이 여성 예술인들에게 꿈과 희망,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줄 수 있었던 기반은 바로 남성 관객들의 호응과 소비 의향이었다는 점이다. 〈계속〉




# 로렌하이츠 센터메디컬 클리닉 개원, 송홍우 주치의의 맞춤형 케어

## "시니어 건강 관리의 새로운 기준 제시"

지난 10월 초, 센터메디컬그룹의 3호 직영 병원인 센터메디컬 클리닉 로렌하이츠점이 개원했다. 풀러턴과 가든그로브에 이어 세 번째 직영 병원으로, 로렌하이츠 지역 주민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로렌하이츠점의 담당 주치의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인 송홍우 주치의다. 송 주치의는 노인성 질환, 특히 소화기 질환,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영어와 한국어 모두 가능한 젊은 의사로, 방문하는 시니어 환자들에게 정성을 다해 진료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초등학교를 마친 후 미국에 이민 왔으며, 부모님의 엄격한 교육 덕분에 한국어에 능통하다.

센터메디컬 클리닉 로렌하이츠점은 근골격계 질환은 물론 고혈압, 당뇨, 치매, 고지혈증 등 다양한 시니어 만성질환에 대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통증 주사와 관절 주사 치료도 실시하고 있다. 가주 내에서 시니어들을 위한 전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온 센터메디컬그룹은 빠르고 정확한 진료로 유명하며, 로렌하이츠점 개원 이후 지역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끌고 있다.

센터메디컬 클리닉은 "개인 맞춤형 진료"를 표방하며, 하루 환자 수를 제한하여 고품질 집중 진료를 제공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센터메디컬그룹은 내원 환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장점은 라이드 서비스로, 시니어 환자들에게 집과 병원 간의 무제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외에도 센터메디컬 클리닉은 당일 예약 진료, 전화를 통한 원격 진료, 이메일 및 온라인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니어 환자들에게 편리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진료 시간은 월요일~금요일 오전 8시 30분 ~ 오후 5시 30분. 송홍우 원장은 스토니브룩 의과대학에서 레지던시를 거쳐, 애리조나대학교에서 레지던시 수료 후 전문의를 취득했다. 다음은 송 원장과의 일문일답.

**- 센터메디컬 클리닉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현재 메디컬 주치의 시스템은 현실적인 이유로 환자를 많이 봐야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다 보니, 개개인에 충분히 신경을 쓰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센터메디컬 그룹에 와보니, 특히 노인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그들의 질환을 충분한 시간 동안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주치의는 자신의 환자를 제대로 돌봐야 하는데, 5~10분 만에 환자의 상태를 충분히 파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 사람의 건강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려면 더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환자 한 분 한 분에게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센터메디컬 클리닉 로렌하이츠점 송홍우 주치의. ⓒ기독일보

개인적으로도 저는 이민자로서 부모님을 돌보는 과정에서 미국 내 의료 시스템에서 겪는 갭을 많이 느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학병원을 가야 지속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주치의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을 많이 보았고, 저 또한 환자들을 잘 챙길 수 있는 주치의가 되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 직영점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저희 병원의 가장 큰 특징은 환자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진료를 진행한다는 점입니다. 신규 환자분들은 한 시간, 기존 환자분들은 최소 30분 이상 진료를 하려고 합니다. 하루 최대 16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특히 시니어 환자들의 생활 습관 개선과 건강 체크를 통해 맞춤형 케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은?**

저희는 돈을 벌기보다는, 오시는 한 분 한 분에게 정성을 다해 진료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의사들에게서 소원함을 느끼셨다면, 저희 병원을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메디컬 그룹은 미국 내에서 최단 시간에 리퍼럴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시니어 환자분들에게는 집과 병원 간의 교통편을 무제한으로 제공하여 편리함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직영점의 젊은 의사들은 최신 의학 트렌드와 지식을 빠르게 습득하고 적용하고 있어, 이를 통해 환자들에게 더 나은 진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문의: (626)363 4661

▶주소: 19115 Colima RD #105 Rowland Height CA 91748

토마스 맹 기자

# 새언약 초중고등학교, 추수감사절 맞아 나눔 행사

한인타운에 위치한 새언약 초중고등학교가 추수감사절을 맞아 의미 있는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 학교는 지역 사회와 아프리카를 돕기 위한 다양한 기부 활동을 펼쳐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학교는 이번 행사에서 6952개의 캔을 모아 지역의 노숙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또한, 2700달러의 염소 기금을 아프리카에 기부하여 현지 주민들에게 지속 가능한 생계 수단을 제공하는 데 도움을 주기로 했다. 행사에는 학생 약 230명, 교직원들, 그들의 가족들이 참여하여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들은 함께 모여 기부활동에 참여하며, 나눔의 중요성과 공동체 정신을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다. 새언약 초중고등학교 관계자는 "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나눔의 가치를 배우고, 지역 사회와 국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다양한 봉사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언약초중고등사립학교에 대한 문의는 213) 487-5437로 하면 된다.

이윤준 기자




새언약 초중고등학교, 추수감사절 행사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귀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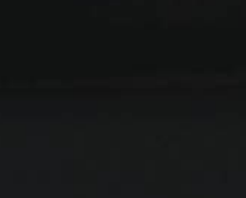
세상을 더 아름답게 볼 수 있게-
당신의 소중한 눈을 건강하게 지켜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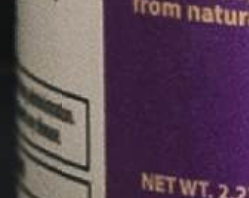
KISEIDO

# EYE NOON EY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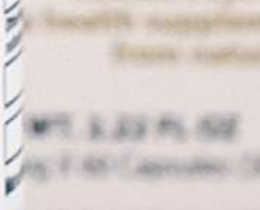
## 믿음의 이름, 귀생당에서 만든 이시대 최고의 눈 건강 영양제!

좁아진 시야, 흐려진 시야로 고생하는 당신을 위한 최고의 눈 영양제!
**[귀생당 아이 눈 아이]**는 슈퍼푸드라고 불리우는 청정 열매인 **마퀴베리의 안토시아닌과 델피니딘, 루테인, 지아잔틴** 성분을 함께 구성하여 현대인의 눈 건강의 최적화와 눈 건강에 더욱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새롭게 나온 눈 영양제입니다.


망막색소 재활성화


시력기능 향상


야간시력 개선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예방

## 하루에 2캡슐! 아이 눈 아이로 더 밝은 세상을 만나세요!

### 아이 눈 아이의 효능 효과

- 눈 기능 활성화, 눈 건강유지 및 보호
- 장시간 컴퓨터, 스마트 폰, TV, 등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눈의 피로 개선
- 백내장, 녹내장, 근시 및 AMD(황반변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
- 활성산소 완화
- 혈류 개선, 미세혈관 순환증가
- 심혈관, 뇌혈관 순환 도움
- 알츠하이머, 치매, 집중력, 인지능력 향상
- 장내 효소 증가
- 소화기능 개선
- 빈혈, 간 기능 개선
- 면역체계 향상

**주요성분** 안토시아닌,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타잔틴, 델피니딘, 프로안토시아니딘, 피페린, 빌베리

• SINCE 1975 •
귀생당
KISEIDO U.S.A., Inc

**1.800.909.0001** www.kiseidousa.com

These statements have not evaluated by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d disease.